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글 맞춤법 제15항과 제18항은 용언이 활용할 때의 표기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15항은 ‘웃다, 웃고, 웃으니’처럼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의 표기 원칙을, 제18항은 ‘긋다, 그어, 그으니’처럼 ㉠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의 표기 원칙을 밝히고 있다. 한글 맞춤법의 이러한 내용들은 국어사전의 [활용]의 표기에 반영되어 있다. 아래는 국어사전의 일부를 간추려 제시한 것이다.

**웃다**  
발음 [운:따]  
[활용] 웃어[우:서], 웃으니[우:스니], 웃는[운:는]

**긋다**  
발음 [근:따]  
[활용] 그어[그어], 그으니[그으니], 긋는[근:는]

동사 ‘웃다’와 ‘긋다’의 [활용]에서 각각 ‘웃다’와 ‘긋다’의 활용형과 그 표준 발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활용]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 즉 ‘활용 정보’를 통하여 ㉡ 활용 양상이 동일한 용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규칙 활용 용언 중 동사 ‘벗다’는 ‘벗어, 벗으니, 벗는’처럼 활용하므로 ‘웃다’와 활용 양상이 동일하고, 불규칙 활용 용언 중 ‘짓다’는 ‘지어, 지으니, 짓는’처럼 활용하므로 ‘긋다’와 활용 양상이 동일하다.

한편 용언이 활용할 때 음운 변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활용형의 표기에 반영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다’의 활용 정보는 ‘자[자], 자니[자니]’처럼 제시되는데 이때의 활용형 ‘자’는 ‘자다’의 어간 ‘자-’가 어미 ‘-아’와 결합할 때 동일 모음의 탈락이 일어나 ‘자’로 실현된 결과가 활용형의 표기에 반영된 것이다. 이와는 달리 ‘좋다’는 ‘좋아[조:아], 좋으니[조:으니]’가 활용 정보에 제시되는데 이는 음운 변동의 결과가 활용형의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즉 활용 정보에 나타나는 활용형 ‘자’와 ‘좋아’의 표기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35. ㉠과 ㉡을 모두 만족하는 용언의 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구르다 - 잠그다
- ② 흐르다 - 푸르다
- ③ 뒤집다 - 끼입다
- ④ 붙잡다 - 정답다
- ⑤ 캐묻다 - 엇듣다

36.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의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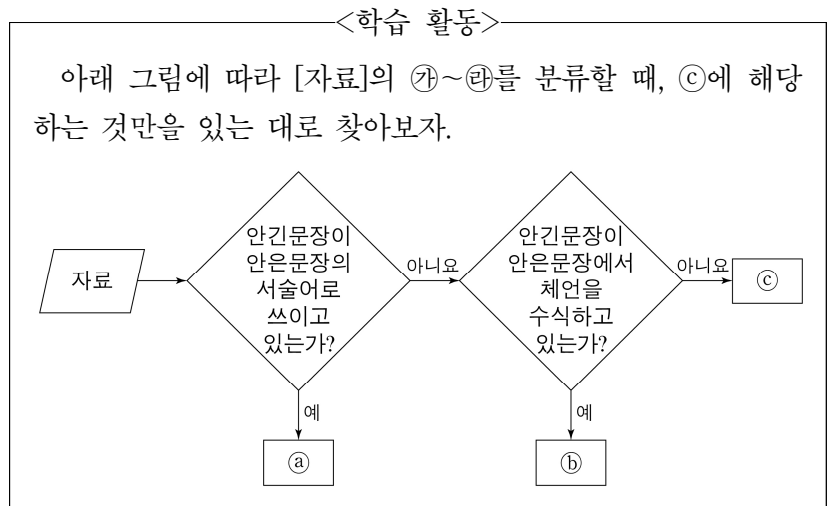
<보 기>

**국어사전의 표제어와 활용 정보**

㉠ 서다	[활용]	서, 서니 ...
㉡ 끄다	[활용]	꺼, 끄니 ...
㉢ 풀다	[활용]	풀어, 푸니 ...
㉣ 쌓다	[활용]	쌓아, 쌓으니, 쌓는 ...
㉤ 믿다	[활용]	믿어, 믿으니, 믿는 ...

- ① ㉠: 탈락이 나타나고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② ㉡: 탈락이 나타나고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③ ㉢: 탈락이 나타나고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④ ㉣: 교체가 나타나지만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 ⑤ ㉤: 교체가 나타나지만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3점]



[자료]

㉠ 노래를 부르기가 쉽지가 않다.

㉡ 마당에 아무도 모르게 꽃이 피었다.

㉢ 나는 동생이 오기 전에 학교에 갔다.

㉣ 내 동생은 누구보다 마음씨가 착하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38.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같은 동아리에 소속된 후배 부원 둘과 선배 부원의 대화 장면)

선 배: ㉠ 학교에서 열린 회의는 잘 끝났니?

후배 1: 네. 조금 전에 끝났어요.

선 배: 수고했어. ㉡ 학교에서 우리 동아리 활동 지원 예산 안에 대해 뭐라고 해?

후배 2: 지난번에 저희가 선배님과 함께 제안했던 예산안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했어요.

선 배: ㉢ 우리가 제안한 예산안이 그렇게 무리한 건 아니었을 텐데.

후배 1: 그런데 학교에서는 ㉣ 자신의 형편을 감안해 달라는 동아리가 한둘이 아니라면서, ㉤ 우리의 제안을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했어요.

선 배: ㉥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겠구나. 고생했어. 지도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게.

후배 2: 네. 그럼 ㉦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 ① ㉠과 ㉡은 문장 성분이 서로 다르군.
- ② ㉢에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군.
- ③ ㉣은 뒤에 있는 '동아리'를 가리키는 말이군.
- ④ ㉤은 ㉡의 '학교'와 ㉤의 '우리'를 모두 포함해서 가리키는 말이군.
- ⑤ ㉦은 화자가 청자와 자신을 모두 낮추기 위해 쓰는 말이군.

39.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에 해당하는 단어가 사용된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신체 관련 어휘는 ㉠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중심적 의미가 ㉡ 주변적 의미로 확장될 수 있어요. 이때 ㉢ 소리는 같지만 중심적 의미가 다른 단어와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이러한 의미 관계를 확인해 봅시다.

**코<sup>1</sup>**

- 포유류의 얼굴 중앙에 튀어나온 부분.
- 콧구멍에서 흘러나오는 액체.

**코<sup>2</sup>**

- 그물이나 뜨개질한 물건의 눈마다의 매듭.

- ① ㉠: 뭍은 코가 옷에 묻어 휴지로 닦았다.
- ② ㉠: 어부가 쳐 놓은 어망의 코가 끊어졌다.
- ③ ㉡: 코끼리는 긴 코를 자유자재로 사용한다.
- ④ ㉡: 동생이 갑자기 코를 다쳐서 병원에 갔다.
- ⑤ ㉢: 어머니께서 목도리를 한 코씩 떠 나가셨다.

[40~42] 다음은 학생이 과제 수행을 위해 인터넷에서 열람한 지역 신문의 웹 페이지 화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군민신문

**○○초등학교, 특색 있는 숙박 시설로 다시 태어난다**  
폐교가 지역 관광 거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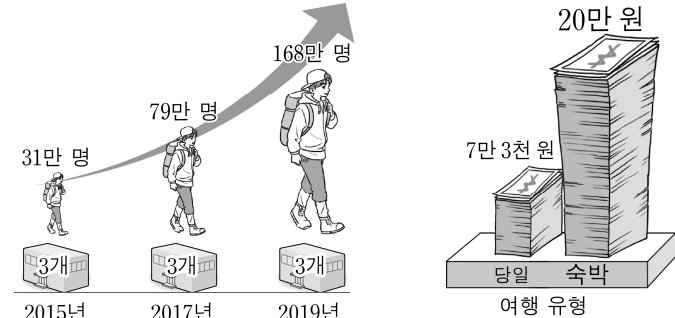
사진: ○○초등학교 시설 전경

지난 1일 △△군은 폐교된 ○○초등학교 시설을 '△△군 특색 숙박 시설'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내 유희 시설을 활용해 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숙박 시설을 조성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초등학교 시설은 ☆☆마을 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건물 내부는 객실·식당·카페·지역 역사관 등으로 꾸미고, 운동장에는 캠핑장·물놀이장을 조성한다. △△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에 인접한 ☆☆마을은 2015년부터 캐릭터 동산, 어린이 열차 등 체험 관광 시설을 조성하여 특색 있는 지역 관광지로서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인근에 숙박 시설이 거의 없어 체류형 관광객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A]**



연도	관광객 수	숙박 시설 수
2015년	31만 명	3개
2017년	79만 명	3개
2019년	168만 명	3개

여행 유형	지출액
당일	7만 3천 원
숙박	20만 원

※자료: △△군 문화관광체육과(201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이번 사업을 둘러싼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지역 주민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지역 경제 전문가 오□□ 박사는 “당일 관광보다 체류형 관광에서 여행비 지출이 더 많다”며 “인근 수목원과 벚꽃 축제, 빙어 축제 등 주변 관광지 및 지역 축제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02. 06:53:01 최초 작성 / 2021.06.03. 08:21:10 수정  
△△군민신문 이◇◇ 기자

좋아요(213)
싫어요(3)
SNS에 공유
스크랩

**관련 기사(아래를 눌러 바로 가기)**

-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 증가... 인근 주민들, “유희 시설로 방치되어 골칫거리”
- [여행 전문가가 추천하는 지역 명소 ①] ☆☆마을... 다섯 가지 매력이 넘치는 어린이 세상

**댓글**

**방랑자:** 가족 여행으로 놀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 **나들이:** 맞아요. 우리 아이가 물놀이를 좋아해서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캠핑도 즐기고요.  
↳ **방랑자:** 카페에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요.

18 / 20

가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절’은 발음의 단위이다. 음절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국어 발음의 특징과 여러 가지 음운 변동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이기 때문에 한글의 표기와 발음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한글 표기법에는 소리를 그대로 적는다는 원칙도 있지만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하나의 의미는 하나의 형태로 고정하여 적는다는 원칙도 있어서, ㉡표기가 실제 발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표기된 글자가 실제 발음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실제 발음이 아니라 ㉢표기된 글자 하나하나를 ‘음절’이라고 인식하는 관습이 있다. 끝말잇기도 이러한 관습을 규칙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놀이이다. 그러나 발음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기가 아니라 발음을 기준으로 음절을 인식해야 한다.

발음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말의 음절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어떤 음절이든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에 따라 ㉣‘모음’, ‘자음+모음’, ‘모음+자음’, ‘자음+모음+자음’ 중 한 가지 유형에 해당한다. 각 음절 유형은 표기 형태에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축하[추카]’와 같이 ㉤표기 형태가 음절 유형을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음절의 구조에 제약이 존재한다. 우선 초성에는 ‘ㅇ’이 올 수 없다. 또한 중성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 올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그래서 중성 자리에 올 수 없는 자음이 놓여 발음할 수 없으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 발음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A] 중성에는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중성 자리에 두 개의 자음이 놓이게 되면 둘 중 하나가 탈락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한편 음절 구조 제약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음운 변동도 있다. 예를 들어 ‘논일[논닐]’에서 ‘ㄴ’이 첨가되는 것은 음절 구조 제약과는 무관한 음운 변동이다.

35.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 따라 ‘싫증’은 싫다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첫 글자의 형태를 고정하여 표기한 예이다.
  - ② ㉡에 해당하는 예로 ‘복소리’와 ‘국물’을 들 수 있다.
  - ③ ㉢에 따라 끝말잇기를 할 때, ‘나뭇잎’ 뒤에 ‘잎새’를 연결할 수 있다.
  - ④ ㉣의 구분에 따르면 ‘강’과 ‘복’은 같은 음절 유형에 해당하지만, ‘목’과 ‘뭇’은 서로 다른 음절 유형에 해당한다.
  - ⑤ ㉤에 해당하는 예로 ‘복어’를, 해당하지 않는 예로 ‘강변’을 들 수 있다.

36. [A]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표기	발음
㉠	굳이	[구지]
㉡	옷만	[온만]
㉢	물약	[물락]
㉣	값도	[갑또]
㉤	활는	[할른]

- ① ㉠: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 ② ㉡: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 ③ ㉢: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첨가가 한 번,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 ④ ㉣: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첨가가 한 번 일어난다.
- ⑤ ㉤: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37.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다음은 접사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파생어 들이요. ㉠~㉤에서 각각 확인되는 접사의 공통점을 설명해 보세요.

㉠ 넓이, 믿음, 크기, 지우개  
 ㉡ 끄덕이다, 출렁대다, 반짝거리다  
 ㉢ 울보, 낚시꾼, 멧쟁이, 장난꾸러기  
 ㉣ 밀치다, 살리다, 입히다, 깨뜨리다  
 ㉤ 부채질, 땀나물, 휘감다, 빼앗기다

**학생:** 예, 접사가 ㉣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① ㉠에서는 용언에 결합하여 명사를 만든다
- ② ㉡에서는 부사에 결합하여 동사를 만든다
- ③ ㉢에서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의 단어를 만든다
- ④ ㉣에서는 주동사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만든다
- ⑤ ㉤에서는 어근과 품사가 동일한 단어를 만든다

38. <학습 활동>의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높임 표현이 홀문장에서 실현될 수도 있지만, 겹문장의 안긴문장 속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예문을 만들어 보자.

조건	예문
안긴문장에서의 주체 높임의 대상이 안은문장에서 주어로 실현된 겹문장	공원에서 산책하시던 할아버지께서 활짝 웃으셨다.
안긴문장에서의 객체 높임의 대상이 안은문장에서 목적어로 실현된 겹문장	㉠
⋮	⋮

- ① 편찮으시던 어르신께서는 좀 건강해지셨나요?
- ② 오빠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집으로 모시고 갔다.
- ③ 나는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신 날짜를 아직도 기억해.
- ④ 누나는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릴 할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 ⑤ 형은 동생이 찾아뵈려던 선생님을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39.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중세 국어 조사의 쓰임]

- ㉠ 주격 조사 ‘이’는 모음 ‘이’나 반모음 ‘ㅣ’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쓰였다.
- ㉡ 목적격 조사 ‘을’ 또는 ‘을’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쓰였다.
- ㉢ 관형격 조사 ‘스’는 사물이나 존대 대상인 체언 뒤에 쓰였다.
- ㉣ 부사격 조사 ‘로’는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체언 뒤에 쓰였다.
- ㉤ 호격 조사 ‘하’는 존대 대상인 체언 뒤에 쓰였다.

- ① ㉠: 드리 즘든 ㄹ래매 비취요미 [달이 천 개의 강에 비치는 것이]
- ② ㉡: 바블 머굼 대로 헤여 머굼과 [밥을 먹을 만큼 헤아려 먹음과]
- ③ ㉢: 그 나똥 불휘를 빼혀 [그 나무의 뿌리를 빼어]
- ④ ㉣: 물<sup>ㄹ</sup>곤 물<sup>로</sup> 모술 땡노라 [맑은 물로 못을 만드노라]
- ⑤ ㉤: 넙금하 아<sup>ㄹ</sup>쇼셔 [임금이시여, 아십시오]

[40~43] (가)는 인쇄 매체의 기사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학생이 만든 카드 뉴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청소년의 사회 참여, 현주소는 어디인가?

청소년 사회 참여는 청소년이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발표된 ○○ 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 ‘청소년도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무려 88.3%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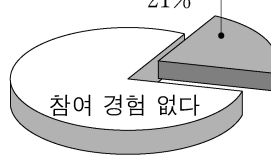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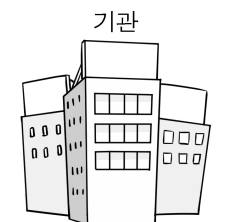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청소년에게 사회 참여 활동 경험이 있을까? ○○ 기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사회 참여 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1%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 청소년이 주도하는 사회 참여 활동 기회가 부족하여 참여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의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이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활동을 확산해 나가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 3학년 김 모 학생은 ㉤ 사회 참여 활동을 경험하면서 배운 것이 많지만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없어서 아쉬웠다고 하였다. 이에 덧붙여 앞으로는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활동을 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대 사회학과 김◇◇ 교수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은 사회성을 향상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며,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관 중심의 청소년 참여와 청소년이 주도가 된 사회 참여가 함께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 박▽▽ 기자 -

(나)

카드 1	카드 2
<p>청소년도 사회 참여가 필요 합니다.</p>  <p>청소년의 약 88%는 <b>청소년도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b>고 생각합니다.</p>	<p>참여 경험 있다 21%</p>  <p>참여 경험 없다</p> <p><b>그러나</b> 실제로 사회 참여 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은 21%에 그쳤습니다. 왜일까요?</p>
카드 3	카드 4
<p>기관</p>  <p>청소년</p> <p>청소년 사회 참여가 확산되기 어려운 이유는 현재의 청소년 사회 참여가 <b>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b>입니다.</p>	<p>기관 중심의 활동</p>  <p>청소년 주도적 활동</p> <p>이에 △△대 사회학과 김◇◇교수는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관 중심의 청소년 참여와 청소년이 주도가 된 사회 참여가 <b>함께</b>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p>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출수형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서는 일반 어휘처럼 문법 형태소에서도 하나의 형태가 여러 의미로 쓰이거나 여러 형태가 하나의 의미로 쓰이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가령, 전자로는 현대 국어에서 명사 ‘높이’에 쓰인 명사 파생 접사 ‘-이’와 부사 ‘높이’에 쓰인 부사 파생 접사 ‘-이’를 예로 들 수 있다. 명사 파생 접사 ‘-이’는 여러 의미로 쓰인다. 예컨대 ‘놀이’에서는 ‘...하는 행위’의 의미를, ‘구두담이’에서는 ‘...하는 사람’의 의미를, ‘연필깎이’에서는 ‘...하는 데 쓰이는 도구’의 의미를 나타낸다. 후자로는 현대 국어의 명사 파생 접사 ‘-이’와 ‘-음’을 예로 들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도 명사 파생 접사 ‘-이’와 부사 파생 접사 ‘-이’가 존재하였다. 가령, 현대 국어의 ‘길이’와 마찬가지로 ‘기리(길-+ -이)’의 ‘-이’는 형용사 어간에 붙어 명사도 만들고 부사도 만들었다. 또한 ‘-이’는 ‘사리(살-+ -이)’처럼 동사 어간에 붙어 ‘...하는 행위’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하는 사람’, ‘...하는 데 쓰이는 도구’의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중세 국어에서 명사 파생 접사 ‘-이’처럼 용언 어간에 붙는 명사 파생 접사 ‘-의’도 쓰였는데, 이 ‘-의’는 ‘-이’와 달리 부사는 파생하지 않았다. 또한 접사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서는 ‘-이’로 쓰였는데, 접사 ‘-이’는 중세 국어에서 ‘ㅣ’ 모음이 양성 모음도 아니고 음성 모음도 아니어서 모음 조화와는 무관하게 결합하였다.

〔너비(넙-+ -의)도 7티 하고 [넓이도 같이 하고]  
 〔노퍽(높-+ -의) 다섯 자히러라 [높이가 다섯 자였다]

한편, 중세 국어에서는 ‘의’가 앞 체언에 붙어 관형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로 쓰이기도 했다. 관형격 조사는 평칭의 유정 체언 뒤에 쓰였고, 부사격 조사는 서술어와 호응하여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에서 쓰였다. 그런데 이들 ‘의’도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서는 ‘이’로 쓰였다.

〔버의(범+ 의) 뼈나 [범의 뼈나]  
 〔사르의(사람+ 의) 무레 [사람의 무리에]  
 〔무의(물+ 의) 든니논 [물에 다니는]  
 〔바의(밤+ 의) 나디 아니흐느니 [밤에 나가지 아니하니]

35.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현대 국어의 ‘책꽂이’에서 ‘-이’는 ‘...하는 행위’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이다.
  - ② 현대 국어 ‘놀이’에서의 ‘-이’는 중세 국어 ‘사리’에서의 ‘-이’와 달리 ‘...하는 사람’의 의미로 쓰인다.
  - ③ 현대 국어 ‘길이’처럼 중세 국어 ‘기리’도 명사와 부사로 쓰였다.
  - ④ 중세 국어에서 접사 ‘-의’가 붙어 파생된 단어는 두 가지 품사로 쓰였다.
  - ⑤ 중세 국어에서 체언에 조사 ‘의’가 붙은 말은 관형어나 부사어로 쓰였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王人 겨퇴 안젧다가 [왕의 곁에 앉아 있다기]
- ㉡ 曲江人 구벽에 7마니 든니노라 [곡강의 굽이에 가만히 다니노라]
- ㉢ 光明이 불기 비취여 [광명이 밝히 비치어]
- ㉣ 글지시에 위두흐고 [글짓기에 으뜸이고]
- ㉤ 쓰리 일후문 [딸의 이름은]

- ① ㉠에서 ‘겨퇴’의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합한 부사격 조사 이군.
- ② ㉡에서 ‘구벽’의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합한 부사 파생 접사이군.
- ③ ㉢에서 ‘불기’의 ‘-이’는 모음 조화와 무관하게 결합한 부사 파생 접사이군.
- ④ ㉣에서 ‘글지시’의 ‘-이’는 모음 조화와 무관하게 결합한 명사 파생 접사이군.
- ⑤ ㉤에서 ‘쓰리’의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합한 관형격 조사 이군.

37.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두 사람이 공원에서 만난 상황)

민수: 영이야, ㉠ 우리 둘이 뭐 하고 놀까? 이 강아지랑 놀까?  
 영이: (민수 품에 안겨 있는 강아지를 가리키며) 아, 애?  
 민수: 응, 애가 전에 말했던 봄이야. 봄이 동생 숨이는 집에 있고.  
 영이: 봄이랑 뭐 하고 놀까? 우리 강아지 별이는 실뭉치를 좋아해서 ㉡ 우리 둘은 실뭉치를 자주 가지고 놀아. 너네 강아지들도 그래?  
 민수: 실뭉치는 ㉢ 둘 다 안 좋아해. 그런데 공은 좋아해서 ㉣ 우리 셋은 공을 갖고 자주 놀아. 그래서 공을 챙겨 오긴 했어.  
 영이: 그렇구나. 별이는 실뭉치를 좋아하니까, 다음에 내가 혼자 나오고 내가 별이랑 나오면 그때 ㉤ 우리 셋은 실뭉치를 갖고 놀면 되겠다.  
 민수: 그러자. 그럼 오늘 ㉤ 우리 셋은 공을 가지고 놀자.

- ①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
- ② ㉡이 가리키는 대상은 ㉤이 가리키는 대상에 포함된다.
- ③ ㉢이 가리키는 대상은 ㉤이 가리키는 대상에 포함된다.
- ④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
- ⑤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

38. 밑줄 친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보기>의 문장과 같은 것은?

<보 기>  
이곳의 지형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에 유리하다.

- ① 그 광물이 원래는 귀금속에 속했다.
- ② 그는 바람이 불기에 옷깃을 여몄다.
- ③ 우리는 원두막을 하루 만에 지었다.
- ④ 나는 시간이 남았기에 그와 걸었다.
- ⑤ 나는 구호품을 수해 지역에 보냈다.

39. <보기>는 준말에 관한 한글 맞춤법의 일부이다. 이를 적용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제34항 [붙임 1] ‘ㄱ, ㅋ’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

제35항 모음 ‘ㅛ, ㅠ’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ㅛ/ㅛ어, ㅛ았/ㅛ었’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

제35항 [붙임 2] ‘ㄴ’ 뒤에 ‘-어, -었-’이 어울려 ‘내, ㄴ었’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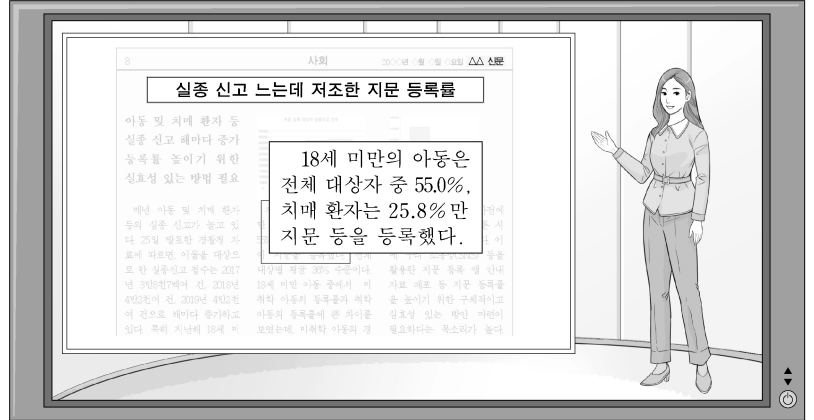
제36항 ‘ㅣ’ 뒤에 ‘-어’가 와서 ‘ㅋ’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

제37항 ‘ㅏ, ㅑ, ㅓ, ㅕ, ㅗ’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내, ㅋ, ㅛ, ㅕ, ㅗ’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

- ① ㉠을 적용하면 ‘(날이) 개었다’와 ‘(나무를) 베어’는 각각 ‘꺾다’와 ‘베’로 적을 수 있다.
- ② ㉡을 적용하면 ‘(다리를) 꼬아’와 ‘(죽을) 쑤었다’는 각각 ‘꽂’과 ‘쑤다’로 적을 수 있다.
- ③ ㉢을 적용할 때, 어간 ‘(발로) 차-’에 ‘-이-’가 붙은 ‘(발에) 차이-’에 ‘-었다’가 붙으면 ‘채었다’로 적을 수 있다.
- ④ ㉣을 적용한 후 ㉢을 적용할 때, 어간 ‘(벌이) 쏘-’에 ‘-이-’가 붙은 ‘(벌에) 쏘이-’에 ‘-어’가 붙으면 ‘쑤’로 적을 수 있다.
- ⑤ ㉣을 적용한 후 ㉢을 적용할 때, 어간 ‘(오줌을) 누-’에 ‘-이-’가 붙은 ‘(오줌을) 누이-’에 ‘-어’가 붙으면 ‘뉘어’로 적을 수 있다.

[40~43] 다음은 ‘지문 등 사전등록제’에 대한 신문 기사를 다루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며칠 전 김 모 군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김 군이 돌아온 데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역할이 컸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지문 등 사전등록제’에 대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먼저 △△신문, 함께 보시죠.



진행자: 표제가 ‘실종 신고 하는데 저조한 지문 등록률’인데요, 기사 내용 일부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은 55.0%, 치매 환자는 25.8%만 지문 등을 등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무엇이고, 왜 이렇게 등록률이 저조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문가: △△신문에서 언급한 대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지문과 사진, 신상 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하여, 실종 시에 이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찾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문에서는 홍보가 부족해 지문 등록률이 저조하다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개인 정보 유출은 민감한 사안이니 정보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전문가: ㉢ 사전등록 정보는 암호화 과정을 거쳐 저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정보는 ㉣ 아동이 18세에 도달하면 자동 폐기되고, 보호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네, 그래도 등록률을 높이려면 현재보다 강화된 개인 정보 보호 방안이 있어야겠네요. △△신문을 더 살펴볼까요? 지문 등을 사전등록하면 실종자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나요?

전문가: 지문 등을 등록하지 않으면 실종자를 찾기까지 평균 56시간, 등록하면 평균 50여 분 정도 걸립니다.

진행자: 시간이 많이 단축되네요. 이제 다른 기사들도 살펴볼까요? □□신문인데요, 간단히 보면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하는 지역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에는 지문 등 사전등록 스마트폰 앱이 소개되어 있네요.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운은 단어의 뜻을 변별하는 데 사용되는 소리로 언어마다 차이가 있다. 예컨대 국어에서는 음운으로서 ‘ㅅ’과 ‘ㅆ’을 구분하지만 영어에서는 구분하지 않는다. 음운이 실제로 발음되기 위해서는 발음의 최소 단위인 음절을 이뤄야 하는데 음절의 구조도 언어마다 다르다. 국어는 한 음절 내에서 모음 앞이나 뒤에 각각 최대 하나의 자음을 둘 수 있지만 영어는 ‘spring[sprɪŋ]’처럼 한 음절 내에서 자음군이 형성될 수 있다.

음운은 그 자체로는 뜻이 없다. 음운이 하나 이상 모여 뜻을 가지면 의미의 최소 단위인 형태소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형태소를 결합하여 단어를 만들고 말을 한다. 이때 ㉠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에서 음운이 다양하게 배열되고 발음이 결정되는데, 여기에 음운 규칙이 관여한다. 예컨대 국어에서는 ‘국물[궁물]’처럼 ‘파열음-비음’ 순의 음운 배열이 만들어지면, 파열음은 동일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교체된다. 그런데 이런 음운 규칙도 모든 언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영어에서는 ‘nickname[nɪkneɪm]’처럼 ‘파열음(k)-비음(n)’이 배열되어도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음운, 음절 구조, 음운 규칙은 말을 할 때뿐만 아니라 말을 들을 때도 작동한다. 이들은 말을 할 때는 발음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재료, 구조, 방법이 되고, 말을 들을 때는 말소리를 분류하고 인식하는 틀이 된다. 예컨대 ‘국’과 ‘밥’이 결합한 ‘국밥’은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늘 [국빡]으로 발음되지만, 우리는 이것을 ‘빡’이 아니라 ‘빡’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한다. 그 이유는 [국빡]을 들을 때 된소리되기가 인식의 틀로 작동하여 된소리되기 이전의 음운 배열인 ‘국밥’으로 복원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외국어를 듣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국어의 음절 구조와 맞지 않는 소리를 듣는다면 국어의 음절 구조에 맞게 바꾸고, 국어에 없는 소리를 듣는다면 국어에서 가장 가까운 음운으로 바꾸어 인식하게 된다. 영어 단어 ‘bus’를 우리말 음절 구조에 맞게 2음절로 바꾸고, ‘b’를 ‘ㅂ’ 또는 ‘ㅃ’으로 바꾸어 [버쓰]나 [빠쓰]로 인식하는 것이 그 예이다.

35.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어 음절 구조의 특징을 고려하면 ‘뫼[목]’의 발음에서 음운이 탈락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군.
  - ② 국어 음운 ‘ㄹ’은 그 자체에는 뜻이 없지만, ‘갈 곳’의 ‘ㄹ’은 어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뜻을 가진 최소 단위가 되겠군.
  - ③ 국어에서 ‘밥만 있어’의 ‘밥만[밤만]’을 듣고 ‘밤만’으로 알았다면 그 과정에서 비음화 규칙이 인식의 틀로 작동했겠군.
  - ④ 영어의 ‘spring’이 국어에서 3음절 ‘스프링’으로 인식되는 것은 국어 음절 구조 인식의 틀이 제대로 작동한 결과이겠군.
  - ⑤ 영어의 ‘vocal’이 국어에서 ‘보컬’로 인식되는 것은 영어 ‘v’와 가장 비슷한 국어 음운이 ‘ㅂ’이기 때문이겠군.

36. ㉠의 위치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          |            |          |
|----------|------------|----------|
| ㉠ 앞일[암닐] | ㉡ 장미꽃[장미꼴] | ㉢ 냥고[너코] |
| ㉣ 걱정[걱쩍] | ㉤ 굳이[구지]   |          |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37.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에서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객체 높임은 일반적으로 주체가 목적어나 부사어로 지시되는 대상인 객체보다 지위가 낮을 때 어휘적 수단이나 문법적 수단으로써 객체를 높이 대우하는 것이다. 전자는 **객체 높임의 동사**(‘송-’, ‘아뢰-’ 등)를 쓰는 방법이고, 후자는 **객체 높임의 조사**(‘씨’, ‘께’)를 쓰는 방법과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습-’ 등)를 쓰는 방법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썼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를 쓰지 않는다. 다음에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해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말 다 송고 부터씨 禮數<sup>ᄒᆞ</sup>습고  
 [이 말 다 아뢰고 부처<sup>ᄒᆞ</sup>께 절 올리고]

- <보기 2>
- ㉠ 나도 이제 너희 스승니를 보습고져 ᄒᆞ노니  
 [나도 이제 너희 스승님을 뵈고자 하니]
  - ㉡ 須達이 舍利弗의 가 [수달이 사리불<sup>ᄒᆞ</sup>게 가서]
  - ㉢ 내 이제 世尊의 송노니 [내가 이제 세존<sup>ᄒᆞ</sup>께 아뢰니]
  - ㉣ 여보, 당신이 이모님께 어머님 모시고 갔었어?
  - ㉤ 선생님께서 그 아이에게 다친 덴 없는지 여쭈 보셨다.

- ① ㉠: 어휘적 수단으로 객체인 ‘너희 스승님’을 높이 대우하고 있다.
- ② ㉡: 문법적 수단으로 객체인 ‘舍利弗(사리불)’을 높이 대우하고 있다.
- ③ ㉢: 조사 ‘씨’와 동사 ‘송노니’는 같은 대상을 높이기 위해 쓰이고 있다.
- ④ ㉣: 조사 ‘께’와 동사 ‘모시고’는 서로 다른 대상을 높이기 위해 쓰이고 있다.
- ⑤ ㉤: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고려하면 동사 ‘여쭈’의 사용은 부적절하다.

38.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와 의미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자립성의 유무 의미의 유형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	㉡
형식 형태소	X	㉢

다음 문장의 형태소를 ㉠, ㉡, ㉢으로 분류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해 보자.

우리는 비를 맞고 바람에 맞서다가 드디어 길을 찾아냈다.

- ① '우리는'의 '우리'와 '드디어'는 ㉡에 속한다.
- ② '비를'와 '길을'에는 ㉠과 ㉡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 ③ '맞고'의 '맞-'과 '맞서다가'의 '맞-'은 모두 ㉢에 속한다.
- ④ '바람에'에는 ㉡과 ㉢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 ⑤ '찾아냈다'에는 ㉡과 ㉢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39.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피동문은 대응하는 능동문과 일정한 문법적 관련을 맺는다. 그중 피동문의 서술어는 능동문의 서술어에 피동의 문법요소를 결부하여 만드는데, 국어에서는 ㉠ 동사 어근에 피동 접사 '-이-', '-히-', '-리-', '-기-'를 결합하는 방법(접-/접히-), ㉡ 접사 '-하-'를 접사 '-받-', '-되-', '-당하-' 등으로 교체하는 방법(사랑하-/사랑받-), ㉢ 동사 어간에 '-아지-/어지-'를 결합하는 방법(주-/주어지-) 등이 쓰인다. 단, '날씨가 풀리다'에서처럼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태를 표현할 때에는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한편 '없어지다'나 '거긴 잘 가지지 않는다'처럼 ㉣ '-아지-/어지-'는 형용사나 자동사에 변화의 의미를 더하는 데 쓰이기도 하는데 이런 용법일 때는 피동문을 이루지 않는다.

- ① ㉠: 아버지가 아이에게 두터운 점퍼를 입혔다.
- ② ㉡: 내 몫의 일거리는 형에게 건네받았다.
- ③ ㉢: 언론에 의해 사건의 전모가 자세히 밝혀졌다.
- ④ ㉣: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
- ⑤ ㉣: 모두가 바라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40~43] (가)는 텔레비전 뉴스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교내에 게시하기 위해 동아리에서 만든 포스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생활 속 유용한 경제 뉴스를 알려 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뉴스 록, 김 기자. ㉠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 알려 주신다면서요?  
**기자:** 네. 한국〇〇공단에서 실시하는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일상 속 작은 노력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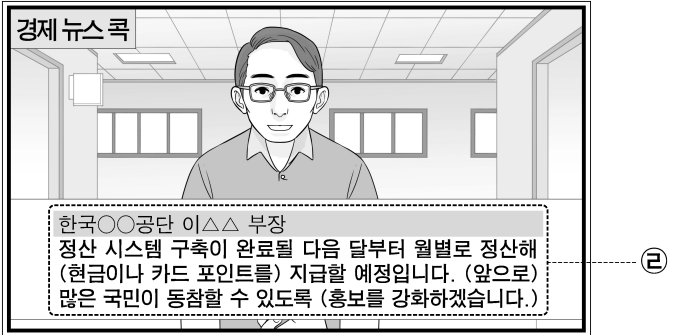


제도 실시 후 석 달 만에 가입자 십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여기고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려는 국민들이 그만큼 많았던 뜻이겠죠. ㉢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이 포인트를 받으려면 누리집에 가입해야 합니다.



누리집에 가입해서 각종 탄소 중립 활동을 실천하면 연간 최대 칠만 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으로 받으면 백 원, 배달 음식 주문할 때 일회 용기 대신 다회 용기를 선택하면 천 원, 세제나 화장품 살 때 빈 통을 가져가 다시 채우면 이천 원, 무공해차를 대여하면 오천 원이 적립됩니다. ㉣ 한국〇〇공단 관계자의 말을 들어 보겠습니다.

**관계자:** 정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다음 달부터 월별로 정산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자:** 기존의 탄소 포인트 제도와 더불어 이 제도가 국민들의 탄소 줄이기 생활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서는 명사가 동사나 형용사와 차례대로 결합하여 ‘손잡다’와 같은 합성 동사나 ‘쓸모없다’와 같은 합성 형용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합성 동사와 합성 형용사를 묶어 합성 용언이라고 한다. 합성 용언은 크게 구성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구성적 측면에서 합성 용언은 그 구성 요소들이 맺는 문법적 관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쓸 만한 가치가 없다.’를 뜻하는 ㉠ ‘쓸모없다’는 명사 ‘쓸모’와 형용사 ‘없다’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주고, ‘손을 마주 잡다.’를 뜻하는 ㉡ ‘손잡다’는 명사 ‘손’과 동사 ‘잡다’가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준다. 그리고 ‘남에게 드러내어 뽐낼 만한 거리로 하다.’를 뜻하는 ㉢ ‘자랑삼다’는 명사 ‘자랑’과 동사 ‘삼다’가 부사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준다.

한편 의미적 측면에서 합성 용언은 그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와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가령 ‘쓸모없다’는 구성 요소인 ‘쓸모’와 ‘없다’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한다. 반면 ‘주름 잡다’는 구성 요소인 ‘주름’과 ‘잡다’의 의미를 벗어나 ‘모든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하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경우이다. ‘주름잡다’의 이와 같은 의미가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롭게 획득되었다는 사실은, ‘나는 바지에 주름 잡는 일이 너무 어렵다.’의 ‘주름 잡는’의 의미를 고려하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그런데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합성 용언 중에는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불타다’가 ‘나는 지금 학구열에 불타고 있다.’에서와 같이 ‘의욕이나 정열 따위가 끓어오르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경우에는 ‘학구열에’라는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이러한 사실은 ‘불타다’가 ‘장작이 지금 불타고 있다.’에서와 같이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과 비교할 때 더 분명해진다.

35.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시장에서 책가방을 값싸게 샀다.’의 ‘값싸게’는 구성적 측면에서 ㉠과 동일한 유형의 합성 용언이겠군.
- ② ‘나는 눈부신 태양 아래에 서 있었다.’의 ‘눈부신’은 구성적 측면에서 ㉠과 동일한 유형의 합성 용언이겠군.
- ③ ‘누나는 나를 보자마자 뒤돌아 앉았다.’의 ‘뒤돌아’는 구성적 측면에서 ㉡과 동일한 유형의 합성 용언이겠군.
- ④ ‘언니는 밤새워 숙제를 다 마무리했다.’의 ‘밤새워’는 구성적 측면에서 ㉡과 동일한 유형의 합성 용언이겠군.
- ⑤ ‘큰형은 앞서서 골목을 걷기 시작했다.’의 ‘앞서서’는 구성적 측면에서 ㉢과 동일한 유형의 합성 용언이겠군.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그는 학문에 대한 깨달음에 ㉠ 목말라 있다.
- 그는 이 과자를 간식으로 ㉡ 점찍어 두었다.
- 그녀는 요즘 야식과 ㉢ 담쌓고 지내고 있다.
- 그녀는 노래 실력이 아직 ㉠ 녹슬지 않았다.
- 그녀는 최신 이론에 마침내 ㉢ 눈뜨게 됐다.

- ① ㉠: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 ② ㉡: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 ③ ㉢: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 ④ ㉠: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 ⑤ ㉢: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37.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국어의 어미는 용언 어간에 붙어 여러 가지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누어진다. 선어말 어미는 용언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제나 높임과 같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 선어말 어미는 하나 혹은 둘 이상이 쓰일 수도 있고 아예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어말 어미에는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가 있다. 어말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달리 하나만 붙고, 반드시 있어야 한다.

- 머무시는 동안 ㉠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 이 부분에서 물이 ㉡ 솟을 가능성이 높다.
- ㉢ 번거로우시겠지만 서류를 챙겨 주세요.
- 시원한 식혜를 먹고 갈증이 싹 ㉠ 가셨구나.
- 항구에 ㉢ 다다른 배는 새로운 항해를 준비했다.

- ① ㉠: 선어말 어미 두 개와 연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② ㉡: 선어말 어미 없이 전성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③ ㉢: 선어말 어미 세 개와 연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④ ㉠: 선어말 어미 두 개와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⑤ ㉢: 선어말 어미 한 개와 전성 어미가 사용되었다.

38.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끼리 묶인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국어의 부정에는 ‘안’이나 ‘-지 않다’를 사용하는 ‘의지 부정’과 ‘못’이나 ‘-지 못하다’를 사용하는 ‘능력 부정’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안’이나 ‘-지 않다’가 사용된 부정문이 주어의 의지와 무관한 ‘단순 부정’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다. ㉠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이면 ‘안’이나 ‘-지 않다’는 단순 부정을 나타낸다. 형용사가 나타내는 성질이나 상태에는 주어의 의지가 작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동사가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에도 주어가 의지를 가지지 못하는 무정물이면 ‘안’이나 ‘-지 않다’가 단순 부정을 나타낸다. 또한 동사가 서술어로 쓰이고 주어가 유정물이더라도 ‘나는 깜빡 잊고 약을 안 먹었다.’에서와 같이 ‘안’이 단순 부정을 나타낼 수 있다.

- ① [ ㉠: 옛날엔 통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  
㉡: 주문한 옷이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다.
- ② [ ㉠: 이 문제집은 별로 어렵지 않다.  
㉡: 저는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 ③ [ ㉠: 나는 그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다.  
㉡: 동생이 오늘 우산을 안 가져갔어.
- ④ [ ㉠: 내 얘기에 고모는 놀라지 않았다.  
㉡: 이 물질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 ⑤ [ ㉠: 밤바다가 그리 고요하지는 않네.  
㉡: 아주 오래간만에 비가 안 온다.

39.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학생:** 선생님, 표준 발음법 제18항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이 조항에서 ‘ㄱ, ㄷ, ㅂ’ 옆의 괄호 안에 다른 받침들이 포함된 것은 무엇을 나타내나요?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ㄷ, ㄷ, ㄷ, ㄷ), ㄷ(ㅌ, ㅌ, ㅌ, ㅌ), ㅂ(ㅍ, ㅍ, ㅍ, ㅍ)’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선생님:** 좋은 질문이에요. 그건 받침이 ‘ㄱ, ㄷ, ㅂ’이 아니더라도, 음운 변동의 결과로 그 발음이 [ㄱ, ㄷ, ㅂ]으로 바뀌면 비음화 현상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 거예요.

**학생:** 아, 그렇다면 [A] 비음화 현상이 적용된 거네요?

**선생님:** 네, 맞아요.

- ① ‘밖만[방만]’은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후
- ② ‘폭넓다[퐁널따]’는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후
- ③ ‘값만[감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 ④ ‘겉늬다[건늬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 ⑤ ‘호박잎[호방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40~42] (가)는 학습 활동이고, (나)는 학생이 (가)를 수행하기 위해 활용한 전자책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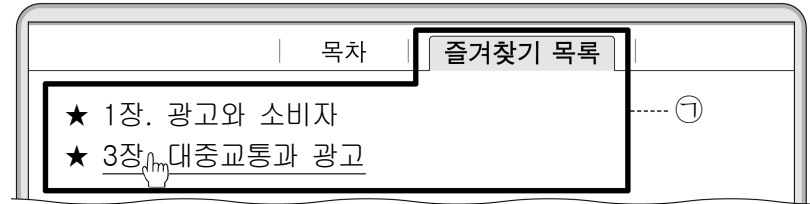
(가)

[학습 활동] 다음 상황을 바탕으로, ○○구청 관계자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광고 방안을 발표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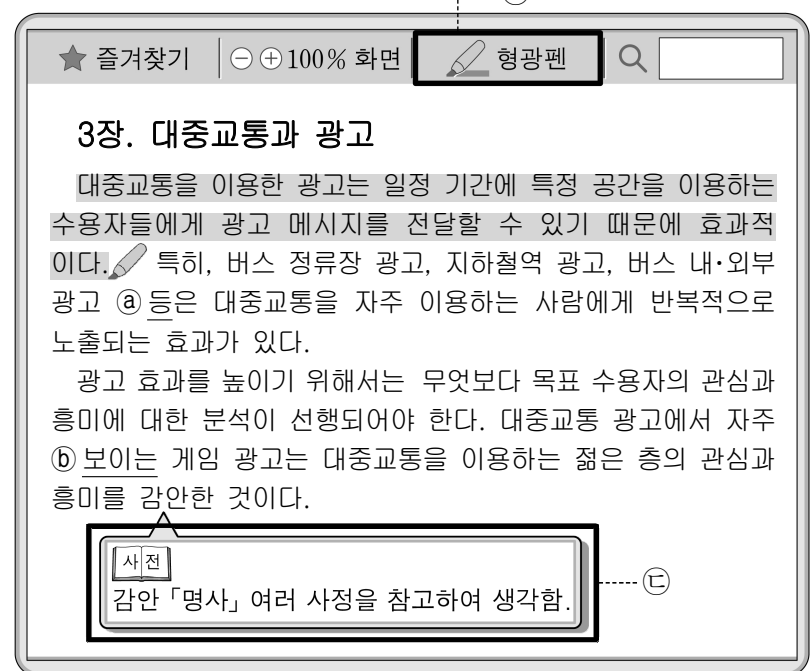
○○구청에서 ‘청소년 문화 한마당’을 기획하면서, ○○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대중교통 광고의 효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를 활용하여 광고 계획을 수립하기로 한다.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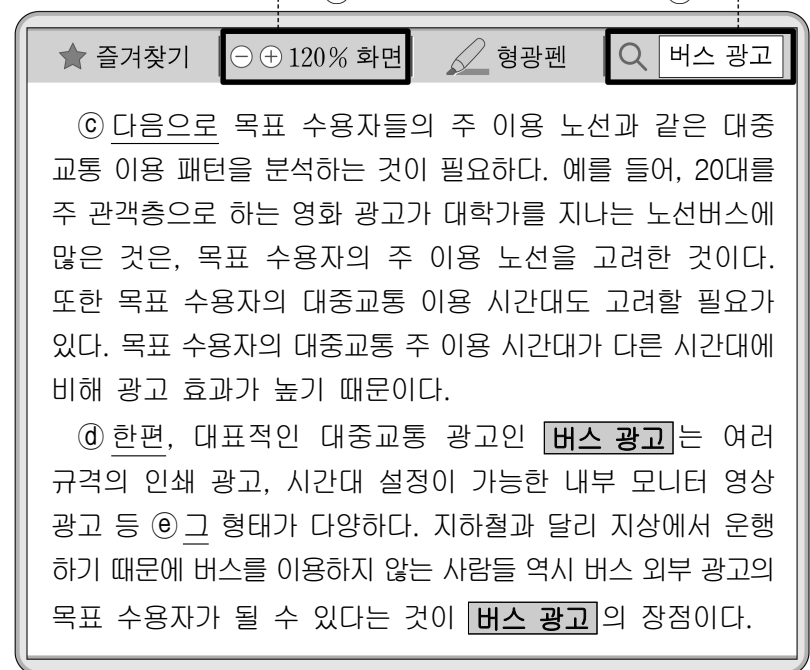
[화면 1]



[화면 2]



[화면 3]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출수형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합성 명사는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어근인 명사이다. 합성 명사의 어근은 복합어일 수도 있는데 ‘갈비찜’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갈비찜’의 직접 구성 요소는 ‘갈비’와 ‘찜’이다. 그런데 ‘갈비찜’을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하면 ‘갈비’, ‘찌-’, ‘-ㅁ’이라는 형태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합성 명사 내부에 복합어가 있을 때, ㉠ 합성 명사를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하면 합성 명사의 내부 구조를 세밀히 알 수 있다.

다의어에서 기본이 되는 의미를 중심적 의미라 하고, 중심적 의미로부터 확장된 의미를 주변적 의미라 한다. 만약 단어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그 의미가 다른 의미로 확장되지 않았다면, 그 하나의 의미를 중심적 의미로 볼 수 있다. 합성 명사의 두 어근에도 ㉡ 중심적 의미나 ㉢ 주변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자립적으로 쓰일 때에는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어 사전에서 뜻풀이가 하나밖에 없는 단어가 합성 명사의 어근으로 쓰일 때 주변적 의미를 새롭게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매섭게 노려보는 눈’을 뜻하는 합성 명사 ‘도끼눈’은 ‘도끼’와 ‘눈’으로 분석되는데, ‘매섭거나 날카로운 것’이라는 ‘도끼’의 주변적 의미는 ‘도끼’가 자립적으로 쓰일 때 가지고 있던 의미라고 보기 어렵다.

합성 명사의 어근이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든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든, 그 어근은 합성 명사 내부에서 나타나는 위치가 대체로 자유롭다. 이는 ‘비바람’, ‘이슬비’에서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는 ‘비’의 위치와 ‘벼락공부’, ‘물벼락’에서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벼락’의 위치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 중 일부는 합성 명사 내부의 특정 위치에서 주로 관찰된다. 가령 ‘아주 달게 자는 잠’을 뜻하는 ‘꿀잠’에는 ‘편안하거나 기분 좋은 것’이라는 ‘꿀’의 주변적 의미가 나타나는데, ‘꿀’의 이러한 의미는 합성 명사의 선행 어근에서 주로 관찰된다. 그리고 ‘넓게 깔린 구름’을 뜻하는 ‘구름바다’에는 ‘무엇이 넓게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바다’의 주변적 의미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바다’는 합성 명사의 후행 어근에서 주로 관찰된다.

35. ㉠에 따를 때, <보기>에 제시된 ㉡~㉣ 중 그 내부 구조가 동일한 단어끼리 묶은 것은?

<보 기>

- 동생은 오늘 ㉡ 새우볶음을 많이 먹었다.
- 우리는 결코 ㉢ 집안싸움을 하지 않겠다.
- 요즘 농촌은 ㉣ 논밭갈이에 여념이 없다.
- 우리 마을은 ㉡ 탈춤놀이가 참 유명하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36. 윗글의 ㉡, ㉢와 연관 지어 <자료>에 제시된 합성 명사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료>

합성 명사	뜻
칼잠	옆으로 누워 불편하게 자는 잠
머리글	책의 첫 부분에 내용이나 목적을 간략히 적은 글
일벌레	일을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사람
입꼬리	입의 양쪽 구석
꼬마전구	조그마한 전구

- ① ‘칼잠’과 ‘구름바다’는 ㉡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같군.
- ② ‘머리글’과 ‘물벼락’은 ㉡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같군.
- ③ ‘일벌레’와 ‘벼락공부’는 ㉢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같군.
- ④ ‘입꼬리’와 ‘도끼눈’은 ㉢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다르군.
- ⑤ ‘꼬마전구’와 ‘꿀잠’은 ㉢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다르군.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다음은 중세 국어의 문자 및 표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자료에서 ㉡~㉣를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모두 골라 묶어 보자.

- ㉡ 乃냉終중ㅍ소리는 다시 첫소리를 쓰느니라  
[중성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다시 초성 글자를 사용한다]
- ㉢ ㅅ를 입시울소리 아래 니셔 쓰면 입시울 가비야쁜 소리 드외느니라  
[ㅇ을 순음 글자 아래 이어 쓰면 순경음 글자가 된다]
- ㉣ 첫소리를 어울워 뿔디면 굴바 쓰라 乃냉終중ㅍ소리도 혼가지라  
[초성 글자를 합하여 사용하려면 옆으로 나란히 쓰라 중성 글자도 마찬가지로이다]
- ㉡ ㅍ와 ㅑ와 ㅓ와 ㅕ와 ㅗ와 ㅛ와란 첫소리 아래 브터 쓰고  
[ㅍ, ㅑ, ㅓ, ㅕ, ㅗ, ㅛ는 초성 글자 아래에 붙여 쓰고]
- ㉢ ㅁ와 ㅂ와 ㅅ와 ㅈ와 ㅊ와란 울흔너기 브터 쓰라  
[ㅁ, ㅂ, ㅅ, ㅈ, ㅊ는 초성 글자 오른쪽에 붙여 쓰라]

자료    ㅼ니, ㅼ, 사비, 스ㅍ불, ㅼ, ㅎ

- ① ㉡: ㅼ, ㅼ, ㅎ                      ② ㉢: 사비, 스ㅍ불
- ③ ㉣: ㅼ니, ㅼ, ㅎ                      ④ ㉡: ㅼ, 스ㅍ불, ㅎ
- ⑤ ㉢: ㅼ니, 사비, ㅼ

38. 다음은 된소리되기와 관련한 수업의 일부이다.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 오늘은 표준 발음을 대상으로 용언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된소리되기를 알아보시다. ‘(신발을) 신고[신:꼬]’처럼 용언의 활용에서는 마지막 소리가 ‘ㄴ, ㄹ’인 어간 뒤에 처음 소리가 ‘ㄱ, ㄷ, ㅅ, ㅈ’인 어미가 결합하면 어미의 처음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요.

학생: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국어에서 ‘ㄱ, ㄷ, ㅅ, ㅈ’이 ‘ㄴ, ㄹ’ 뒤에 이어지면 항상 된소리로 바뀌나요?

선생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표준 발음에서는 용언 어간에 피·사동 접사가 결합하거나 어미끼리 결합하거나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먼지[먼지]’처럼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ㄴ, ㄹ’ 뒤에 ‘ㄱ, ㄷ, ㅅ, ㅈ’이 있는 경우에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다음 ㉠~㉡의 밑줄 친 말에서 ‘ㄴ’이나 ‘ㄹ’ 뒤의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볼까요?

- ㉠ 피로를 푼다[푼다]
- ㉡ 더운 여름도[여름도]
- ㉢ 대문을 잠가[잠가]
- ㉣ 품에 안겨라[안겨라]
- ㉤ 학교가 큰지[큰지]

학생: 그 이유는 [A] 때문입니다.  
 선생님: 네, 맞아요.

- ① ㉠의 ‘ㄴ’과 ‘ㄷ’이 모두 어미에 속해 있는 소리이기
- ② ㉡의 ‘ㄹ’과 ‘ㄷ’이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이기
- ③ ㉢의 ‘ㄹ’과 ‘ㄱ’이 모두 하나의 형태소 안에 속해 있는 소리이기
- ④ ㉣의 ‘ㄴ’과 ‘ㄱ’이 어미끼리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이기
- ⑤ ㉤의 ‘ㄴ’과 ‘ㅈ’이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가 아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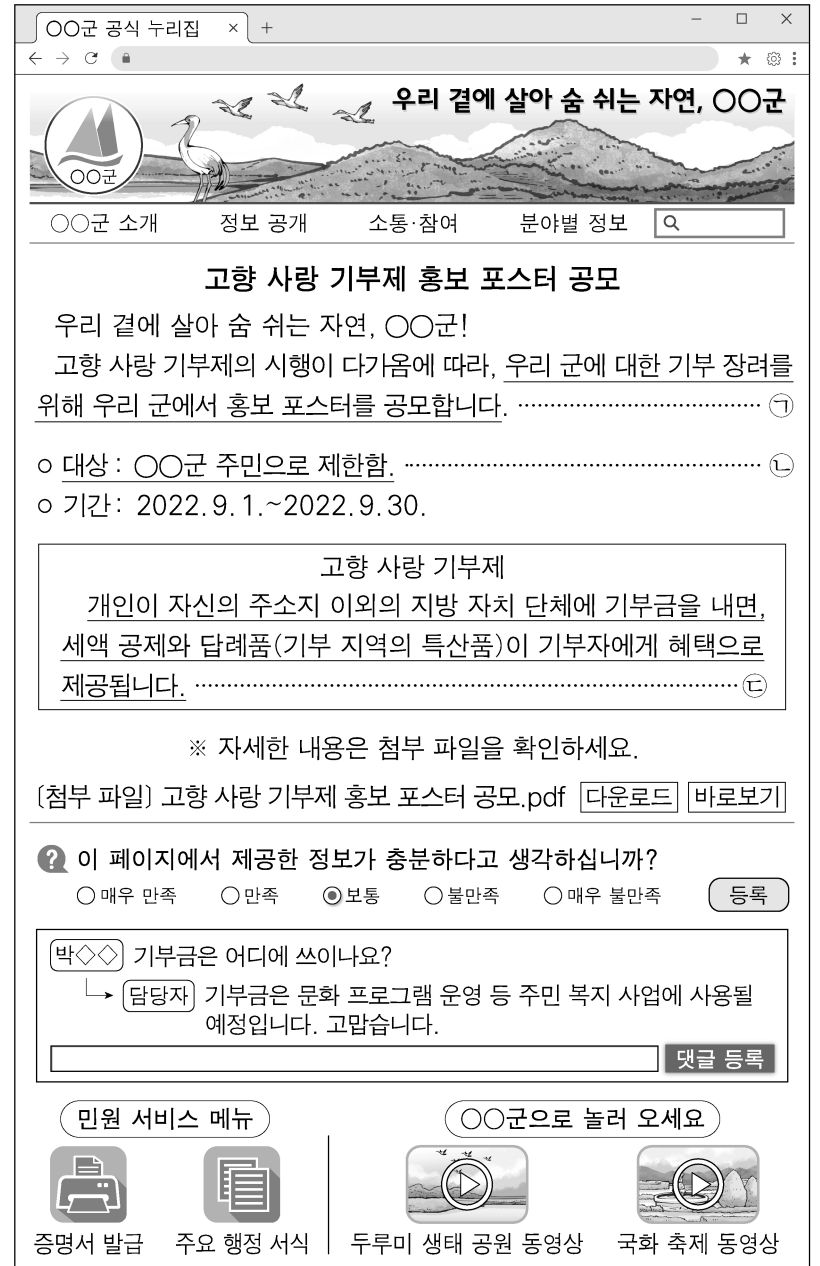
39.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나는 내 친구가 보낸 책을 제시간에 받기를 바란다.
- ㉡ 나는 테니스 배우기가 재미있다고 친구에게 말했다.
- ㉢ 이 식당은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 식당이 아니다.
- ㉣ 그녀는 아름다운 관광지를 신이 닳도록 돌아다녔다.

- ① ㉠에는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② ㉠과 ㉡에는 모두, 주어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 있다.
- ③ ㉠과 ㉢에는 모두,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④ ㉢에는 보어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부사어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⑤ ㉢과 ㉣에는 모두,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이 있다.

[40~43] (가)는 ○○군 공식 누리집 화면의 일부이고, (나)는 학생들의 온라인 화상 회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해운: 이제 화상 회의 시작하자. 내 말 잘 들리지?  
 설아: 해운아,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이크 좀 확인해 줄래?  
 해운: 어? 내 마이크 음량을 키워 볼게. 이제 잘 들리지?  
 설아: 응. 근데 오늘 나연이는 참석 못 한대. 내가 회의를 녹화해서 나중에 보내 주려고 해. 동의하지?  
 해운, 종서, 수영: 응, 그래.

채팅: 설아님이 회의 녹화를 시작합니다.

해운: 오늘 고향 사랑 기부제 홍보 포스터를 어떻게 만들지 논의하기로 했잖아. 우리 ○○군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 봤니?  
 종서: 미안해. 나는 아직 못 봤어.  
 수영: 음, 직접 말로 설명하려면 회의가 길어지니까 첨부 파일 보내 줄게. 파일에 자세히 설명돼 있으니 읽으면서 들어.

채팅: 수영님이 종서님에게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파일명: 고향 사랑 기부제 홍보 포스터 공모.pdf

종서: 고마워.  
 해운: 그럼 이어서 얘기할게. 내가 만들어 온 그래픽 자료를 보면서 포스터를 어떻게 구성할지 이야기하자.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나의 살던 고향’은 ‘내가 살던 고향’과 같은 의미로 ‘나’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살던’의 의미상 주어 역할을 나타내는 특이한 구조이다. 이처럼 관형격 조사 ‘의’가 주격 조사처럼 해석되는 경우가 중세 국어에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聖人의(聖人+의) ᄃᆞ치산 法[성인의 가르치신 법]의 경우, ‘聖人’은 관형격 조사 ‘의’와 결합하고 있지만 후행하는 용언인 ‘ᄃᆞ치산’의 의미상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는 중세 국어 관형격 조사 결합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평칭의 유정 체언에는 모음 조화에 따라 ‘의/의’가, 무정 체언 또는 존칭의 유정 체언에는 ‘스’이 결합하는 원칙이 있었는데, ‘스’이 쓰일 자리에 ‘의’가 쓰였기 때문이다.

중세 국어 격조사 결합 원칙의 또 다른 예외는 부사격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는 결합하는 선행 체언의 끝음절을 기준으로, 모음 조화에 따라 ‘나중애’(나중+애), ‘므래’(믈+애)에서처럼 ‘애/에’가 쓰인다. 단, 끝음절이 모음 ‘이’나 반모음 ‘ㅣ’로 끝날 때에는 ㉠ ‘뉘예’(뉘+예)에서처럼 ‘예’가 쓰였다. 그런데 ‘애/에/예’가 쓰일 위치에 부사격 조사인 ‘의/의’가 쓰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예외는 ‘봄’, ‘나조ᄃᆞ[저녁], ㉡ ‘우ᄃᆞ[위], ‘밀’ 등의 일부 특수한 체언들에서 확인된다. 가령, ‘나조ᄃᆞ’에는 ‘의’가 결합하여 ㉢ ‘나조ᄃᆞ의(나조ᄃᆞ+의)로, ‘밀’에는 ‘의’가 결합하여 ‘미ᄃᆞ(밀+의)로 나타났다.

중세 국어의 부사격 조사 가운데 관형격 조사가 그 구성 성분으로 분석되는 독특한 경우도 있다. 가령, ‘이그에’는 관형격 조사 ‘의’에 ‘그에’가 결합된 형태이고 ‘스기’ 역시 관형격 조사 ‘스’에 ‘기’가 결합된 부사격 조사다. 이들은 ㉣ ‘늑미그에’(늑+이그에)나 ‘어마ᄃᆞ기’(어마ᄃᆞ+스기)와 같이 사용되었는데 평칭의 유정 명사 ‘늑’에는 ‘이그에’가, 존칭의 유정 명사 ‘어마ᄃᆞ’에는 ‘스기’가 쓰인다. 중세 국어의 ‘이그에’와 ‘스기’는 각각 현대 국어의 ‘에게’와 ㉤ ‘께’로 이어진다.

35. 윗글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부사격 조사 ‘예’와 결합하는 선행 체언의 끝음절에서 반모음 ‘ㅣ’가 확인된다.
  - ② ㉡에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면 ‘우회’가 된다.
  - ③ ㉢은 현대 국어로 ‘저녁의’로 해석되어 관형격 조사의 쓰임이 확인된다.
  - ④ ㉣의 ‘이그에’에서는 관형격 조사 ‘의’가 분석된다.
  - ⑤ ㉤이 현대 국어에서 존칭 체언에 사용되는 것은 중세 국어 관형격 조사 ‘스’와 관련된다.

36. [A]를 바탕으로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자 료>

- ㉠ 수ᄃᆞ(수ᄃᆞ+스) 神靈이 길헤 나아  
[현대어 풀이: 수ᄃᆞ의 신령이 길에 나와]
- ㉡ 늑미(늑+의) 말 드러사 알 씨라  
[현대어 풀이: 늑의 말 들어야 아는 것이다]
- ㉢ 世界스(世界+스) 일올 보샤  
[현대어 풀이: 세계의 일을 보시어]
- ㉣ 이 사ᄃᆞ미(사ᄃᆞ+의) 잇는 方面을  
[현대어 풀이: 이 사람의 잇는 方面을]
- ㉤ 孔子의(孔子+의) 기티신 글워리라  
[현대어 풀이: 공자의 남기신 글이다]

- ① ㉠: ‘神靈(신령)’이 존칭의 유정 명사이므로 ‘수ᄃᆞ’에 ‘스’이 결합한 것이군.
- ② ㉡: ‘늑’이 유정 명사이고 끝음절 모음이 음성 모음이므로 ‘의’가 결합한 것이군.
- ③ ㉢: ‘世界(세계)스’이 ‘보샤’의 의미상 주어이고, ‘스’은 예외적 결합이군.
- ④ ㉣: ‘이 사ᄃᆞ미’가 ‘잇는’의 의미상 주어이고, ‘의’는 예외적 결합이군.
- ⑤ ㉤: ‘孔子(공자)의’가 ‘기티신’의 의미상 주어이고, ‘의’는 예외적 결합이군.

37. <학습 활동>의 ㉠~㉣에 들어갈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보기>의 조건이 실현된 예문을 만들어 보자.

<보 기>

- ㉠ 현재 시제만 쓰일 것.
- ㉡ 서술어의 자릿수가 둘일 것.
- ㉢ 안긴문장이 부사어로 기능할 것.

실현 조건	예문
㉠, ㉡	㉠
㉠, ㉢	㉡
㉡, ㉢	㉢

- ① ㉠: 그 집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자란다.
- ② ㉡: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학교 근처에 사시지요?
- ③ ㉢: 산중에 있으므로 여기는 도시보다 조용합니다.
- ④ ㉣: 오늘부터 아침으로 과일만 먹기로 마음먹었니?
- ⑤ ㉤: 오래전 큰아버지께 받은 책에 곰팡이가 슬었어.

# 2

#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8. <보기>의 ㉠, ㉡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음운의 변동 가운데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자음군 단순화, ㉢ 된소리되기를 학습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음운 변동의 적용 유무를 기준으로 단어를 분류하는 활동을 진행해 볼게요. 그럼, 표준 발음을 고려해서 다음 단어들을 분류해 보죠.

분류 전	㉠	㉡	㉢	분류 후
넓디넓다, 높푸르다, 늦깎이, 닭갈비, 썩대밭, 앞장서다, 읊다, 있다, 짓밟다, 흙빛	○	○	○	㉠
	○	×	○	㉡
	○	×	×	
	×	○	○	

○: 해당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것.  
×: 해당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

- |   | ㉠    | ㉡    |  |
|---|------|------|--|
| ① | 짓밟다  | 늦깎이  |  |
| ② | 넓디넓다 | 있다   |  |
| ③ | 읊다   | 높푸르다 |  |
| ④ | 흙빛   | 썩대밭  |  |
| ⑤ | 닭갈비  | 앞장서다 |  |

39.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희철, 민수, 기영이 ○○서점 근처에서 만난 상황)

희철: 애들아, 잘 지냈어? 3일 만에 보니 반갑다.

민수: 동해안으로 체험 학습 다녀왔다면? ㉠ 내일은 도서관에 가서 발표 준비하자. 기영인 어떻게 생각해?

기영: ㉡ 네 말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럼 정수도 부를까?

희철: 그러자. ㉢ 저기 저 ○○서점에서 오전 10시에 만나서 다 같이 도서관으로 가자. ㉣ 정수한테 전할 때 서점 위치 링크도 보내 줘. 전에도 헤맸잖아.

민수: 이제 아냐. ㉤ 어제 나랑 저기서 만났는데 잘 ㉥ 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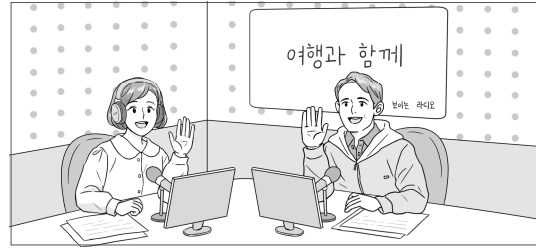
희철: 그렇구나. 어제 잘 ㉦ 왔었구나.

민수: 아, 기영아! ㉧ 우리는 회의 가야 돼. ㉨ 네가 ㉩ 우리 셋을 대표해서 정수에게 연락을 좀 해 줘.

- ① ㉠은 ㉡과 달리 발화 시점과 관계없이 언제인지가 정해진다.
- ② ㉢은 ㉣과 달리 지시 표현이 이전 발화를 직접 가리킨다.
- ③ ㉤은 ㉥과 달리 담화 참여자에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진다.
- ④ ㉦은 ㉧과 달리 화자가 있던 장소로의 이동을 나타낸다.
- ⑤ ㉨은 ㉩과 달리 담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40~43] (가)는 보이는 라디오의 본방송이고, (나)는 이 방송을 들은 학생의 메모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 매주 수요일,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여행과 함께'를 시작합니다. 앱이나 문자로 언제든지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보이는 라디오 시청자는 실시간 댓글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오늘도 여행가 안○○님을 모셨습니다.

여행가: 안녕하세요. 안○○입니다.

진행자: 지난주부터 등대 스탬프 여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그중 '재미있는 등대'라는 주제를 소개하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여행가: 네, 오늘은 '풍요의 등대'입니다. 서해안에 위치한 16개 등대와 □□ 생물 자원관을 돌아보면서 풍요로운 해산물도 즐길 수 있는 여행 코스입니다.

진행자: 이제부터 '풍요의 등대'에 속한 등대들을 알아볼 텐데요, 그중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곳이 있나요?

여행가: 저는 천사의 섬이라는 모티브를 살려 천사의 날개와 선박을 형상화한 △△ 등대가 가장 좋았습니다. 등대에 설치된 LED 조명이 켜지면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이국적인 경관을 연출하는 곳인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먹는 전복 라면은 정말 맛있죠.

진행자: 정말 맛있겠네요. 많은 분들이 실시간 문자로 지난주에 안내했던 등대 스탬프 여행의 순서를 물으시네요. 예정된 건 아니지만 다시 안내해 주시겠어요?

여행가: ㉢ 우선 모바일 여권과 종이 여권 중 하나를 선택해서서 참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모바일 여권은 앱을 이용하시면 되고, 종이 여권은 '등대와 바다' 누리집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등대들을 돌아다니면서 스탬프를 찍고 사진을 촬영하시는 겁니다. 사진을 다 모으시면 누리집에서 완주 인증을 하시는 거죠.

진행자: ㉣ 실시간 댓글로 6789님께서 스탬프 여행의 주의 사항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시답니다. 함께 알아보을까요?

여행가: ㉤ 네, 앞에서 말씀드린 완주 인증은 날짜가 기록된 사진으로만 가능합니다. 처음엔 스탬프로 완주 인증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바뀐 거죠. 하지만 스탬프를 찍기 원하는 여행자들이 많아 여전히 스탬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도 등대나 기쁨향 등대처럼 등대 주변에 스탬프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행자: 스탬프가 등대 주변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한 경우도 있다는 거군요. 잠시만요, 나머지 등대를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 2부에서 계속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 '풍요의 등대'의 완주 기념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행가: (테이블에 오르골을 올리며) 바로 이 등대 오르골입니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복합어는 합성과 파생을 통해 형성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뉜다. 의미를 고려하여 어떤 말을 둘로 나누었을 때 그 둘 각각을 직접 구성 요소라 하는데, 합성어는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어근인 단어이고, 파생어는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어근과 접사인 단어이다. 그리고 한 개의 형태소가 직접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하고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모여 직접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꽃별’은 그 직접 구성 요소 ‘꽃’과 ‘별’이 모두 어근이므로 합성어이다. 그리고 ‘꽃’과 ‘별’은 각각 한 개의 형태소이다.

일반적으로 합성과 파생을 통해 단어가 형성될 때에는 그 구성 요소의 형태가 유지된다. 그런데 단어가 형성될 때 형태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먼저 ㉠ 한 단어에서 형태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대뉘’는 ‘뉘싯대를 써서 하는 뉘싯질’을 뜻하는 ‘대뉘시’의 일부가 줄어들어 형성된 단어이다. 다음으로 ㉡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들의 처음절끼리 결합한 경우가 있다. ‘고법(高法)’은, ‘고등(高等)’과 ‘법원(法院)’이 결합하여 형성된 ‘고등 법원’이라는 말의 ‘고(高)’와 ‘법(法)’이 결합하여 형성되었다. 또한 ㉢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들에서 어떤 말의 앞부분과 다른 말의 뒷부분이 결합한 경우가 있다. ‘교과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일선 학교에 나가 교육 실습을 하는 학생’을 뜻하는 ‘교생(敎生)’은 ‘교육(敎育)’의 앞부분과 ‘실습생(實習生)’의 뒷부분이 결합하여 형성되었다.

이처럼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이 줄어들어 형성된 단어는, 그 단어의 형성에 사용된 말과 여러 의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뉘’와 ‘대뉘시’는 서로 바꾸어 써도 그 의미에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서로 유의 관계를 맺고, ‘고법’은 ‘법원’의 일종이므로, ‘고법’과 ‘법원’은 상하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고법’이 형성될 때 사용된 ‘고등’은 ‘고법’과 의미 관계를 맺지 않는다.

35. [A]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용꿈’의 직접 구성 요소는 모두, 한 개의 자립 형태소로 이루어진 어근어근.
  - ② ‘봄날’과 ‘망치질’은 모두,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접사이므로 파생어어근.
  - ③ ‘필자’를 뜻하는 ‘지은이’의 직접 구성 요소는 모두, 자립 형태소를 포함하고 있군.
  - ④ ‘놀이방’과 ‘단맛’의 직접 구성 요소 중에는 의존 형태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군.
  - ⑤ ‘꽃으로 장식한 고무신’을 뜻하는 ‘꽃고무신’을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하면 ‘꽃고무’와 ‘신’으로 분석할 수 있군.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형성된 단어	뜻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
㉠ 흰자	알 속의 노른자위를 둘러싼 흰 부분	흰자위
㉡ 공수	공격과 수비를 아울러 이르는 말	공격, 수비
㉢ 직선	선거인이 직접 피선거인을 뽑는 선거	직접, 선거
㉣ 민자	민간이나 사기업이 하는 투자	민간, 투자
㉤ 외화	다른 나라에서 만든 영화	외국, 영화

- ① ㉠은 ㉢에 해당하고,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과 유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
- ② ㉡는 ㉣에 해당하고, 단어 형성에 사용된 두 말 중 어느 하나와 유의 관계를 맺는다.
- ③ ㉢은 ㉤에 해당하고, 단어 형성에 사용된 두 말 중 어느 하나와 상하 관계를 맺는다.
- ④ ㉣은 ㉤에 해당하고, 단어 형성에 사용된 두 말 중 어느 말과도 유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
- ⑤ ㉤은 ㉢에 해당하고, 단어 형성에 사용된 두 말 중 어느 말과도 상하 관계를 맺지 않는다.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교체, 탈락, 첨가, 축약’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을 탐구해 보면, 한 단어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같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두 번 이상 일어나기도 한다.

- 한 단어에 음운 변동이 한 번 일어난 예  
예 빗[빗], 여덟[여덜], 맨입[맨닙], 축하[추카]
- 한 단어에 서로 다른 유형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  
예 밝는[밤:는], 닭장[다짱]
- 한 단어에 같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두 번 이상 일어난 예  
예 앞날[암날], 벚꽃[번꼇]

- 이를 참고하여 ㉠~㉥에 해당하는 예를 두 개씩 생각해 보자.
- ㉠ ‘교체가 한 번, 탈락이 한 번’ 일어난 것
  - ㉡ ‘교체가 한 번, 첨가가 한 번’ 일어난 것
  - ㉢ ‘교체가 한 번, 축약이 한 번’ 일어난 것
  - ㉣ ‘교체가 두 번, 탈락이 한 번’ 일어난 것
  - ㉤ ‘교체가 두 번, 첨가가 한 번’ 일어난 것
- ① ㉠: 재밌는[재민는], 엽매는[엵매는]
  - ② ㉡: 불이익[불리익], 견인력[견닌력]
  - ③ ㉢: 똑같이[똑까치], 파문헌[파무친]
  - ④ ㉣: 읊조려[읍쪼려], 걸뉘어[건늘거]
  - ⑤ ㉤: 버들잎[버들립], 덧입어[덧니버]

38. <보기>의 ㉠~㉣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능동·피동 표현과 주동·사동 표현에서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봅시다.

㉠ 형이 동생을 업었다.      ㉡ 동생이 형에게 업혔다.  
 ㉢ 나는 동생에게 책을 읽혔다.  
 ㉣ 나는 동생이 책을 읽게 했다.

먼저 ㉠, ㉡에서 ‘형’을 높임의 대상인 ‘어머니’로 바꿀 때, 서술어에는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말해 볼까요?

학생:  ㉠

선생님: 맞아요. 그럼 ㉢나 ㉣에서 ‘동생’을 ‘할머니’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  ㉣

선생님: ‘-(으)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네요. 그럼 ㉠, ㉡, ㉢의 서술어에서 ‘-었-’을 ‘-고 있-’으로 바꾸면 어떤 의미를 나타낼까요? ㉠와 ㉡의 차이점이나 ㉠와 ㉢의 공통점을 말해 볼까요?

학생:  ㉣

선생님: ‘-고 있-’의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잘 이해하고 있군요.

- ① ㉠: ㉠에서는 서술어에 ‘-으시-’를 넣어야 하지만, ㉡에서는 ‘-시-’를 넣지 않습니다.
- ② ㉣: ㉣에서는 ‘동생에게’를 ‘할머니께’로 바꾸고, ‘읽혔다’에 ‘-시-’를 넣어야 합니다.
- ③ ㉣: ㉣에서는 ‘동생이’를 ‘할머니께서’로 바꾸고, ‘읽게’에 ‘-으시-’를 넣어야 합니다.
- ④ ㉣: ㉠는 동작의 완료 후 상태 지속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지만, ㉡는 그럴 수 없습니다.
- ⑤ ㉣: ㉠와 ㉢는 모두 동작의 진행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39. <자료>를 바탕으로 <보기>의 ㉠~㉤ 중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부속 성분이 있는 것만을 고른 것은?

<보 기>

㉠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내가 이루어져 바다에 가니]  
 ㉡ 나랏 말쑤미 中國에 달아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 生人의 소리 잇도소니 [생인(산 사람)의 소리가 있으니]  
 ㉣ 나흔 子息이 양지 端正호야 [낳은 자식이 모습이 단정하여]  
 ㉤ 내 널오리니 네 이대 드르라 [내가 이르리니 네가 잘 들어라]

<자 료>

<보기>에 나타난 체언과 조사

- 체언: 내, 나, 바, 나라, 말, 中國, 生人, 소리, 子息, 양, 나, 너
- 조사: 주격(이, ㅣ, ㅁ), 관형격(의, 인), 부사격(에, 예)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40~43] (가)는 학생회 소식을 알리는 실시간 방송이고, (나)는 이를 본 학생이 누리 소통망에 올린 게시물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 학생회 소식



접속자 수: 253명



진행자: 고 학생들, 안녕하세요? ‘지켰다, 공약’ 세 번째 시간 이죠. 현재 접속자 수가 253명인데요, 두 번째 방송보다 100명 더 입장했네요. ㉠ 오늘은 학습실 사용 원칙을 정하겠다는 공약에 관해 학생회장이 출연해 직접 알리기로 했습니다.

학생회장: 네, ㉡ 우리 학교 학습실은 개별 및 조별 학습이 가능하고 다양한 기자재를 쓸 수 있어서 인기가 많죠. 근데 자리가 많지 않고 특별한 원칙 없이 사용하다 보니 불편함이 많았죠. 실시간 대화 창 볼까요?

[A] 동주 맞아. 자리 말고 오느라 종래에 늦을 뻔한 적도 있었는데. 다른 학년하고 같이 쓰려니 눈치도 보였고.

동주 학생과 같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공감하시겠죠? 그래서 학생회가 나섰습니다.

고 학생회 소식

1. 학습실 사용 시 학년 구분이 필요한가?

구분	필요하다	필요없다	모르겠다	합계	전교생
응답 수(명)	512	10	14	536	617

2. 학년 구분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좋은가?

구분	합계	3학년	2학년	1학년
요일별 구분(명)	256	174	68	14
시간별 구분(명)	256	14	96	146

지금 화면에 나오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회 내부 회의를 통해 사용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B] 다예 설문 조사에 근거해 원칙을 마련하려고 한 것을 보니까, 학생회가 마련한 원칙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 학생회, 힘내세요!  
재호 다들 학년 구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년별로 선호하는 방법은 다른 게 신기해. 이유가 뭘까?

다예 학생, 감사합니다.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습실 사용은 학생회에 신청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둘째, 학습실 사용은 학년별로 구분하되 3학년은 월·목, 2학년은 화·수, 1학년은 금요일에 사용합니다.

[C] 현지 저는 1학년인데요, 금요일엔 일찍 집에 가고 싶은데, 금요일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좀 그래요.  
연수 학생회장님,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는데요, 설문 결과만으로 끌어내기 어려운 원칙은 어떻게 마련했나요?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출수형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훈민정음 초성자는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든 기본자 5자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가획의 원리(예: ㄱ→ㅋ)에 따라 만든 가획자 9자와 그렇지 않은 이체자 3자가 있다. 중성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기본자 3자가 있고 이를 토대로 한 초출자, 재출자가 각 4자가 있다. 중성자는 초성자를 다시 쓰되 중성에서 실제 발음되는 소리에 대응되는 8자만으로 충분하다 보았는데, 이는 『훈민정음』(해례본) 용자례에서 확인된다.

용자례에서는 이들 글자를 위주로 하여 실제 단어를 예로 들고 있다. 예컨대, 용자례에 쓰인 ‘콩’은 초성자 아음 가획자인 ‘ㄱ’의 예시 단어이다. 이 방식을 응용하면 ‘콩’은 중성자 초출자 ‘ㄱ’와 중성자 아음 이체자 ‘ㅇ’의 예시로도 쓸 수 있다. 용자례의 예시 단어 일부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초성자 용자례〉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반설음	반치음
기본자	ㄱ	노로	ㅍ(산)	ㅅ	ㅂ(뱀)		
가획자	ㅋ	뒤(띠)	벌	조(종이)			
		고티	파	채	부형		
이체자	리(너귀)					어름	아(아위)

〈중성자 용자례〉

기본자	톡/ㄷ리	물/그력(기러기)	깃	
초출자	논/벼로	밥	누에	브섭
재출자	쇼	남상(거북의 일종)	슈름(우산)	덜

〈중성자 용자례〉

8중성자	독	굼병(굼벥이)	반되(반딧불이)	간(갯)
	범	섭(쌀)	갓	벌

이 중 일부 단어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여기에는 표기법상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예와 실제 소리가 변한 예, 그리고 다른 말이 덧붙여 같은 의미의 새 단어가 만들어진 예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어름’을 ‘얼음’으로 적게 된 것은 표기법상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소리의 변화 중 자음이 변화한 경우로는 ㉠ ‘고티’(>고치)나 ‘덜’(>절)처럼 구개음화를 겪은 유형이 있다. 모음이 변화한 경우에는, ㉡ ‘섭’(>쌀)이나 ‘쇼’(>소)처럼 단모음화한 유형, ‘ㄷ리’(>다리)나 ‘톡’(>턱)처럼 ‘ㄷ’가 변한 유형, ㉢ ‘물’(>물)이나 ‘브섭’(>부엌)처럼 원순모음화를 겪은 유형, ‘노로’(>노루)나 ‘벼로’(>벼루)처럼 끝음절에서 ‘ㄱ>ㄱ’ 변화를 겪은 유형 등이 있다. 다른 말이 덧붙여 같은 의미의 새 단어가 만들어진 경우로는 ㉣ ‘부형’(>부엉이)처럼 접사가 결합한 유형과 ㉤ ‘갈’(>갈대)처럼 단어가 결합한 유형이 있다.

※ 본문 예시에서 후음 기본자는 ‘ㅇ’, 아음 이체자는 ‘ㅇ’으로 표기함.

3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훈민정음의 모든 기본자는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것이다.
- ② 초성자 기본자는 모두 용자례 예시 단어의 중성에 쓰인다.
- ③ <초성자 용자례>의 가획자 중 단어가 예시되지 않은 자음자 하나는 아음에 속한다.
- ④ <초성자 용자례> 중 아음 이체자의 예시 단어는, 초성자의 반설음자와 중성자의 반설음자의 예시 단어로 쓸 수 있다.
- ⑤ <중성자 용자례> 중 초출자 ‘ㄱ’의 예시 단어는, 반치음 이체자와 중성자 순음 기본자의 예시 단어로 쓸 수 있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중세 국어 단어의 변화 양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벼리 딴’(>별이 진)의 ‘딴’은 ㉠에 해당한다.
- ② ‘서울 겨샤’(>서울 겨셔)의 ‘서울’은 ㉡에 해당한다.
- ③ ‘풀 우희’(>풀 위에)의 ‘풀’은 ㉢에 해당한다.
- ④ ‘산 거미’(>산 거미)의 ‘거미’는 ㉣에 해당한다.
- ⑤ ‘닥 닙’(>닥나무 잎)의 ‘닥’은 ㉤에 해당한다.

37. <보기>를 바탕으로 ‘ㅎ’ 발음 용언의 활용 유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다음은 어간의 발음이 ‘ㅎ’인 용언이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날 때 보이는 활용의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이들은 활용의 규칙성뿐만 아니라 모음조화 적용 여부나 활용형의 줄어듦 가능 여부에 따라 그 유형이 구분된다.

불규칙 활용 유형		규칙 활용 유형	
㉠-1	노랑- + -아 → 노래	㉡-1	당- + -아 → 당아 (→ *다)
㉠-2	누렁- + -어 → 누레		㉡-2
㉢	어떻- + -어 → 어때		

(\*은 비문법적임을 뜻함.)

- ① ‘조그맣-, 이렇-’은 ‘조그맣, 이래서’로 활용하므로 ㉠-1과 활용의 유형이 같겠군.
- ② ‘꺼멩-, 뿌엥-’은 ‘꺼멩, 뿌엥다’로 활용하므로 ㉠-2와 활용의 유형이 같겠군.
- ③ ‘둥그렇-, 멀격-’은 ‘둥그랬다, 멀게’로 활용하므로 ㉢과 활용의 유형이 같지 않겠군.
- ④ ‘낱-, 땅-’은 활용형인 ‘낱아서, 땅았다’가 “나서, \*땀다”로 줄어들 수 없으므로 ㉡-1과 활용의 유형이 같겠군.
- ⑤ ‘널-, 쌓-’은 활용형인 ‘널어, 쌓아’가 “너, \*짜”로 줄어들 수 없으므로 ㉡-2와 활용의 유형이 같지 않겠군.

38.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영민, 평화가 학교 앞에 함께 있다가 지혜를 만난 상황]  
**영민**: 너희들, 오늘 같이 영화 보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평화**: 응, ㉠6시 걸로 세 장 예매했어. 근데 너, 어디서 와?  
**지혜**: 진로 상담 받고 오는 길이야. 너흰 안 가?  
**평화**: 나는 어제 ㉡미리 받았어.  
**영민**: 나는 4시 반이야. 그거 마치고 영화관으로 직접 갈게.  
**지혜**: 알겠어. 그럼 우리 둘이는 1시간 ㉢앞서 만나자. 간단하게 저녁이라도 먹고 거기서 바로 ㉣가지 뭐.  
**평화**: 좋아. 근데 ㉤미리 먹는 건 좋은데 어디서 볼까?  
**지혜**: 5시까지 영화관 정문 ㉥왼쪽에 있는 분식집으로 와.  
**평화**: 왼쪽이면 편의점 아냐? 아, 영화관을 등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구나. 영화관을 마주볼 때는 ㉦오른쪽 맞지?  
**지혜**: 그러네. 아참! 영민아, 너 상담 시간 됐다. 이때 늦지 않게 영화 ㉧시간 맞춰서 ㉨와.

- ① ㉠과 ㉡은 가리키는 시간이 상이하다.
- ② ㉢과 ㉣은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를 가리킨다.
- ③ ㉤과 ㉥이 가리키는 시간대는 ㉦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 ④ ㉧과 ㉨은 이동의 출발 장소가 동일하다.
- ⑤ ㉥과 ㉦은 기준으로 삼은 방향이 달라 다른 곳을 의미한다.

39.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3점]

<학습 활동>

부사어는 부사, 체언+조사, 용언 활용형 등으로 실현된다. 부사어로서 수식하는 문장 성분은 부사어, 관형어, 서술어 등이다. 일례로 ‘차가 간다.’의 서술어 ‘간다’를 수식하기 위해 부사 ‘잘’을 부사어로 쓰면 ‘차가 잘 간다.’가 된다. [조건] 중 두 가지를 만족하도록, 주어진 문장에 부사어를 넣어 수정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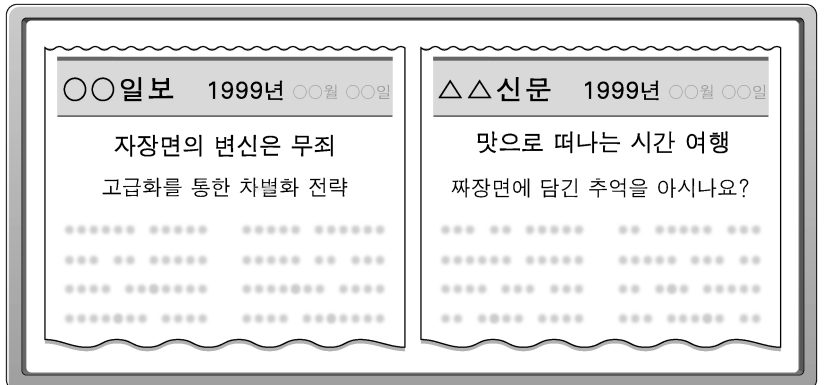
**[조건]**

- ㉠ 부사어를 수식하기 위해 부사를 부사어로 쓴 문장
- ㉡ 관형어를 수식하기 위해 용언 활용형을 부사어로 쓴 문장
- ㉢ 관형어를 수식하기 위해 부사를 부사어로 쓴 문장
- ㉣ 서술어를 수식하기 위해 ‘체언+조사’를 부사어로 쓴 문장
- ㉤ 서술어를 수식하기 위해 용언 활용형을 부사어로 쓴 문장

조건	수정 전 ⇨ 수정 후
① ㉠, ㉡	웃는 아기가 귀엽게 걷는다. ⇨ 방긋이 웃는 아기가 참 귀엽게 걷는다.
② ㉠, ㉢	화가가 굵은 선을 짝 그었다. ⇨ 화가가 조금 굵은 선을 세로로 짝 그었다.
③ ㉢, ㉣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 그를 무척대고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④ ㉣, ㉤	딴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 ⇨ 전혀 딴 사람이 그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했다.
⑤ ㉤, ㉥	영미는 그 일을 처리했다. ⇨ 영미는 그 일을 원칙대로 깔끔히 처리했다.

[40~43] (가)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이고, (나)는 동아리 누리집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상식’ 열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여 년간 대학에서 어문 규범을 가르쳐 오신 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전문가**: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 짜장면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우리가 맛있게 먹는 짜장면이, 한때는 자장면만 표준어로 인정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진행자**: ㉠아, 예전에 그런 내용을 본 적 있어요.  
**전문가**: 네, 전에는 자장면만 표준어였죠. ㉡짜장면은 2011년 8월 31일에서야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표준어로 인정되기 전에도 짜장면이 흔히 쓰이지 않았나요?  
**전문가**: 그렇습니다. 과거의 신문 기사를 보시죠.



**진행자**: 음, 화면을 보니 같은 해에 나온 기사인데도 자장면과 짜장면이 둘 다 쓰이고 있네요?  
**전문가**: 네, 보시는 자료 이외에 다른 신문 기사에도 짜장면이라는 표기가 나타납니다. 비교적 어문 규범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신문에서 짜장면을 사용할 정도로, 일상에서 짜장면이 널리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무렵에 복수 표준어 선정을 위해 실시한 발음 실태 조사에서도, 비표준어였던 짜장면이 표준어인 자장면에 비해 세 배 이상 많이 사용된다고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어문 규범이 언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군요.  
**전문가**: 당시 언중들이 일상에서는 어문 규범과 달리 짜장면을 흔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진행자**: 그러면 사람들의 언어 사용 실태를 반영하여 짜장면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게 된 거네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내용을 잘 파악하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문가**: 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짜장면을 자연스럽게 사용해 왔고 자장이라 표기하면서도 짜장으로 발음해 온 언어 현실을 반영하여 짜장면이 자장면의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짜장면처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서도 현재는 표준어가 아니어도 언젠가 표준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말이 있겠군요.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이나 사물 등을 가리켜 이를 때 사용되는 말은 지칭어, 그 대상을 부르는 말은 호칭어라고 한다. 지칭어 중에는 호칭어로 쓰이는 경우와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지칭어가 호칭어로 쓰이는 경우에 그 형식은 다양하다. 단순하게는 ‘홍길동, 아버지, 당신, 여보’ 등과 같이 명사, 대명사, 감탄사 등의 단어로 실현된다. 또 그 단어에 다른 단어나 ‘-님’ 같은 접미사가 결합되는 복합적 형식도 있다.

동일한 대상이라도 그 사람의 신분, 직위, 대화 참여자와의 사적·공적 관계 등에 따라 지칭어나 호칭어가 달라질 수 있다. 즉, 화자와 상대방 혹은 제삼자가 사적 관계에 있고 대화의 상황이 비격식적이라면 그 대상을 이름이나 친족어 등으로 이르거나 부를 수 있다. 예컨대 ㉡ ‘홍길동’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길동이, 삼촌, 아빠’ 등으로 이르거나 부를 수 있다. ㉢ 공적 관계에 있고 격식적인 대화 상황이라면 그 대상을 공적인 직위나 지위 등을 사용하여 이르거나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 앞서 언급한 ‘홍길동’이 ‘이사’란 직위에 있다면 그를 ‘홍 이사, 홍길동 이사님’ 등으로 이르거나 부를 수 있다. 또한 ㉤ 특수한 의도를 가지고 지칭어나 호칭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령 공적인 상황에서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사적인 호칭어를 쓰기도 한다.

한편 사람이나 사물 등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말 중에는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호칭어로 쓰일 수 없는 말들이 있다. 이들은 다시, 대상을 알지 못하는 미지칭과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불분명한 부정칭으로 나뉜다. 예컨대 ‘너희 학교는 어디야?’의 ‘어디’는 전자에, ‘어디 좀 가자.’의 ‘어디’는 후자에 해당된다. ‘어디 가?’의 ‘어디’는 맥락에 따라 전자와 후자 모두 가능하다. 이러한 대명사 외에 명사, 관형사, 부사 등도 알지 못함이나 불분명함을 나타낼 수 있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이 과일 한 상자에 ㉠ 얼마예요?
  - 그는 ㉡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내니?
  - 지리산은 ㉢ 언제 보아도 아름답겠지?
  - 밖에 ㉣ 어떤 분이 오셨어요?

- ① ㉠, ㉡는 불분명함을 나타내며 품사는 서로 다르다.
- ② ㉠, ㉢는 알지 못함을 나타내며 품사는 동일하다.
- ③ ㉠, ㉣는 알지 못함을 나타내며 품사는 동일하다.
- ④ ㉡, ㉢는 불분명함을 나타내며 품사는 서로 다르다.
- ⑤ ㉡, ㉣는 알지 못함과 불분명함을 모두 나타내며 품사는 동일하다.

36. 다음 ㉠~㉤를 통해 윗글의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아들: ㉠ 엄마, 진로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음, 그래! 그럼 주말에 이모에게 상담 좀 받아 볼까?  
 딸: 엄마, ㉡ 이모도 주말에 쉬어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아들: 아니야. 전에 사촌 누나가 그러던데 이모 주말에 특별한 일 없으시대.  
 아빠: ㉢ 여보세요. ㉣ 김 선생님의 사생활도 생각 좀 하시죠? 그리고, ㉤ 김수진 님! 본인 아드님 진로 상담은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떨까요?  
 엄마: 김 부장님, 제가 언니한테 잘 부탁해 볼 테니 걱정 마세요.  
 아빠: 그럼 ㉠ 이모님께 감사 인사 꼭 드리고 상담도 집중해서 잘 받아라.

- ① ㉠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호칭어 ㉡와 지칭어 ㉢를 통해 확인된다.
- ② ㉣는 지칭어 ㉣와 ㉤로도 확인되는데 비록 화자와 대상의 친족 관계가 다르더라도 같은 형식의 지칭어가 쓰일 수 있음이 확인된다.
- ③ ㉣는 공적이고 격식적인 상황에서 쓰인 호칭어 ㉤를 통해 확인된다.
- ④ ㉤는 지칭어 ㉣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호칭어 ㉤로 실현된 데에서도 확인된다.
- ⑤ ㉤는 화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청자에게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호칭어 ㉣를 사용하는 데에서 확인된다.

37. 밑줄 친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및 종류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 ① [ 할아버지는 형님 댁에 계신다.  
 [ 여객선이 도착한 항구엔 안개가 졌다.
- ② [ 저 친구는 불평이 그칠 날이 없다.  
 [ 그는 배에서 내리는 장면을 상상했다.
- ③ [ 나는 이 호박을 죽으로 만들 것이다.  
 [ 아버지는 뜯눈으로 밤을 새웠다.
- ④ [ 얼음으로 된 성이 나타났다.  
 [ 그는 남이 아니고 가족이다.
- ⑤ [ 그의 신중함은 아무래도 지나쳤다.  
 [ 언니는 간이역만 지나치는 기차를 탔다.

38.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한 단어에서 둘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날 때 이들 간에 순서가 있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 먼저 일어난 음운 변동 결과로 다른 음운 변동이 일어날 조건이 마련되기도 하지요. 예컨대, ‘찾는’은 [찬는]으로 발음되는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비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예요. ㉠~㉣에서 이런 순서나 조건을 확인할 수 있으니 ㉠ 자음군 단순화, ㉡ 된소리되기, ㉢ 비음화,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활용해 설명해 봅시다.

㉠ 실없네[시럽네]	㉡ 깊숙이[깍쭈기]
㉢ 짓밟지[진뺨찌]	㉣ 꺾는[깡는]
㉤ 훑고[훑꼬]	

학 생: \_\_\_\_\_ [A]

선생님: 네, 맞아요.

- ① ㉠은 ㉡가 일어나 ㉢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네요.
- ② ㉡은 ㉢가 일어나 ㉣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네요.
- ③ ㉢은 ㉣가 일어나 ㉠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네요.
- ④ ㉣은 ㉢가 일어나 ㉣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네요.
- ⑤ ㉤은 ㉢가 일어나 ㉠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네요.

39. <탐구 활동>의 ㉠~㉣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탐구 활동>

차자 표기는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하는 것이다. 차자 표기된 한자는 한자의 훈이나 음으로 읽게 된다. 이때 한자의 본뜻이 유지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아래는 이러한 차자 표기 방식들을 ‘水(물-수)’로써 응용해 보인 것이다.

	훈으로 읽음	음으로 읽음
본뜻 유지	예) ‘水’를 ‘물’의 뜻으로 ‘물’로 읽음 ..... ㉠	예) ‘水’를 ‘물’의 뜻으로 ‘수’로 읽음
본뜻 무시	예) ‘水’를 ‘물’의 뜻과 상관 없이 ‘물’로 읽음 .... ㉡	예) ‘水’를 ‘물’의 뜻과 상관 없이 ‘수’로 읽음 .... ㉢

다음 한자(훈-음)를 이용해 차자 표기를 해 보고 그 방식을 설명해 보자.

火(불-화), 土(흙-토), 多(많다-다), 衣(옷-의), 乙(새-을)

예컨대, 고유어 표현 (㉠)의 밑줄 친 부분을 (㉡)로 표기하고 (㉢)(으)로 읽는다면 (㉣)의 방식을 이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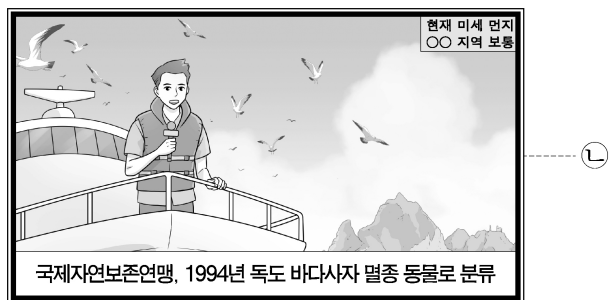
- | ㉠                 | ㉡ | ㉢ | ㉣ |
|-------------------|---|---|---|
| ① 불 <u>빛</u> 이 일다 | 火 | 불 | ㉠ |
| ② 진 <u>흙</u> 이 굳다 | 土 | 흙 | ㉠ |
| ③ 옷 <u>음</u> 이 많다 | 多 | 다 | ㉡ |
| ④ 시 <u>옷</u> 을 적다 | 衣 | 옷 | ㉡ |
| ⑤ 찬 <u>물</u> 을 담다 | 乙 | 을 | ㉢ |

[40~43] 다음은 텔레비전 뉴스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 시청자 여러분, 독도 바다사자를 아십니까? ㉠ 독도 바다사자는 예전에 독도와 인근 해역에 살았던 바다사자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독도 바다사자는 멸종된 지 오래 되어 현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독도 옛 모습 찾기의 일환으로 이 바다사자를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있어 지역 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 기자입니다.



기자: 저는 지금 독도 인근 해역에 나와 있습니다. ㉡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곳은 독도 바다사자의 주요 서식지이자 번식지였습니다. 하지만 ㉢ 일제 강점기 남획으로 인하여 개체수가 급격히 줄다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국제자연보존연맹에서는 1994년에 독도 바다사자를 멸종 동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독도 옛 모습 찾기를 위해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독도 바다사자의 복원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관계자: ㉣ 독도 바다사자는 다른 멸종 위기 동물보다 인간과의 충돌 가능성이 크지 않고, 독도 지역은 서식 환경의 적합성 면에서도 독도 바다사자의 복원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독도의 생물 다양성을 고려할 때, 독도 바다사자 복원은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전문가들도 독도 바다사자의 복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복원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전문가: 독도 바다사자의 경우 동일 개체종이나 동일 개체군으로의 복원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다만, 베링해 등에서 혈연적으로 가까운 개체군을 찾아서 들여오는 방식으로의 복원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독도 바다사자는 독도 해역을 중심으로 베링해 인근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링해 등에서 개체군을 들여와도 문제없이 잘 서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는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쓰임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현상인 품사 통용도 이러한 경우 중 하나이다. 가령 ‘그는 세계적 선수이다.’의 ‘세계적’은 관형사이고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의 ‘세계적’은 명사이므로 ‘세계적’은 품사 통용을 보이는 단어이다. 또한 ‘그는 그저께 낮에 왔다.’와 ‘그는 그저께 왔다.’의 ‘그저께’는 각각 명사와 부사이므로 ‘그저께’도 품사 통용을 보이는 단어이다. 이처럼 명사와 부사로 품사 통용을 보이는 단어에는 ‘약간’도 있다.

품사 통용을 보이는 단어는 그 품사에 따라, 결합하는 단어가 달라지기도 한다. 가령 명사 ‘세계적’은 ‘으로’와 ‘이다’ 등과 같은 격 조사와 결합하지만 관형사 ‘세계적’은 격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명사 ‘그저께’는 다양한 격 조사와 결합한다. 품사 통용을 보이는 단어는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가령 명사 ‘세계적’은 격 조사와 결합해 문장의 부사어와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데 관형사 ‘세계적’은 조사와 결합할 수 없고 항상 관형어로 쓰인다. 그리고 명사 ‘그저께’는 격 조사와 결합해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그런데 국어에는 품사 통용을 보이지 않는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쓰임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먼저 ㉠ 하나의 명사가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로 모두 쓰이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바람이 분다.’의 ‘바람’은 관형어 없이도 문장에 쓰일 수 있는 자립 명사이고, ‘그는 늦잠을 자는 바람에 회사에 지각했다.’의 ‘바람’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문장에 쓰일 수 있는 의존 명사이다. 다음으로 ㉡ 하나의 동사가 본동사와 보조 동사로 모두 쓰이는 경우가 있다. ‘나는 힘을 내었다.’의 ‘내다’는 보조 동사 없이도 문장의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본동사이고, ‘나는 고난을 견뎌 내었다.’의 ‘내다’는 본동사 없이도 문장에 쓰일 수 없는 보조 동사이다. 이를 통해, ‘바람’과 ‘내다’는 그 쓰임에 따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말의 유무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내 생일은 그저께가 아니라 어제였다.’의 ‘그저께’와 ‘그저께 본 달은 매우 밝았다.’의 ‘그저께’는 품사가 서로 같다.
- ② ‘그는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다.’의 ‘세계적’과 ‘그는 그저께 서둘러 여기를 떠났다.’의 ‘그저께’는 품사가 서로 같다.
- ③ ‘첫눈이 그저께 왔다.’의 ‘그저께’와 ‘그는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의 ‘세계적’은 품사는 서로 다르지만 문장 성분은 서로 같다.
- ④ ‘여기는 그저께 낮만큼 더웠다.’의 ‘그저께’와 ‘꽃이 그저께 피었다.’의 ‘그저께’는 품사도 서로 다르고 문장 성분도 서로 다르다.
- ⑤ ‘그는 세계적인 선수이다.’의 ‘세계적인’과 ‘그는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다.’의 ‘세계적으로’는 모두, 명사에 조사와 어미가 결합한 문장 성분이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의 밑줄 친 단어는 모두 둘 이상의 쓰임을 보인다.

㉠ 나는 급한 마당에 실수로 결제 서류를 휴지통에 버렸다.

㉡ 나는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자전거 바퀴를 깨끗이 닦았다.

㉢ 작고 귀여운 강아지가 넓은 마당을 일곱 바퀴나 돌았다.

㉣ 산꼭대기에 구름이 약간 꺼 가지고 경치가 좋아 보였다.

㉤ 나는 모임을 가지고 난 후 아주 급히 집으로 와 버렸다.

- ① ‘마당’은 ㉠에 해당되고 ㉡에서는 자립 명사로 사용되었다.
- ② ‘약간’은 ㉠에 해당되고 ㉡에서는 자립 명사로 사용되었다.
- ③ ‘바퀴’는 ㉠에 해당되고 ㉢에서는 의존 명사로 사용되었다.
- ④ ‘가지고’는 ㉣에 해당되고 ㉤에서는 본동사로 사용되었다.
- ⑤ ‘버렸다’는 ㉣에 해당되고 ㉤에서는 본동사로 사용되었다.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국어에는 ㉠ 유음화, ㉡ ‘ㄹ’의 비음화, ㉢ 구개음화,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ㄴ 첨가 같은 다양한 음운 변동이 있다. 대부분의 표준 발음에는 이러한 음운 변동이 적용돼 있다. 그런데 음운 변동이 잘못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아 비표준 발음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 고려하여 [자료]의 ㉠~㉤가 비표준 발음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자.

[자료]

예	표준 발음	비표준 발음
㉠ 인류가	[일류가]	[인류가]
㉡ 순환론	[순환논]	[순환론]
㉢ 코끝이	[코끄치]	[코끄티]
㉣ 들녘을	[들녘클]	[들녘글]
㉤ 봄여름	[봄너름]	[보머름]

- ① ㉠은 ㉠이 적용돼야 하는데 ㉡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 ② ㉡은 ㉡이 적용돼야 하는데 ㉠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 ③ ㉢은 ㉢이 적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④ ㉣은 ㉣이 적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⑤ ㉤은 ㉤이 적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 2

#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8.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중세 국어에는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와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있었다. [자료]의 밑줄 친 높임 표현의 선어말 어미가 높이는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자료]에 나타난 체언과 조사

- 체언: 妙光(묘광), 네, 燈明(등명), 然燈(연등), 스승, 釋迦(석가), 道(도), 나, 부터, 말씀
- 조사: 이, 을, 스, 를, ㅣ, 띄, 을

[자료]

- 妙光이 네 燈明을 돕스바 然燈人 스스이 드외시고 이제 釋迦를 돕스바 燈明人 道를 니스시며  
[현대어 풀이: 묘광이 넌 등명을 도와 연등의 스승이 되시고 이제 석가를 도와 등명의 도를 이으시며]
- 내 부터의 말쓰물 흐스보디  
[현대어 풀이: 내가 부처께 말씀을 드리되]

높임 표현	높이는 대상
드외시고(드외-+-시-+-고)	㉠
니스시며(닐-+-으시-+-며)	㉡
흐스보디(흐-+-습-+-오디)	㉢

- |          |        |    |
|----------|--------|----|
| ㉠        | ㉡      | ㉢  |
| ① 妙光(묘광) | 妙光(묘광) | 부터 |
| ② 妙光(묘광) | 妙光(묘광) | 말씀 |
| ③ 스승     | 妙光(묘광) | 부터 |
| ④ 스승     | 스승     | 말씀 |
| ⑤ 스승     | 스승     | 부터 |

39. <보기>의 [조건]이 모두 실현된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조건]

- 안긴절이 한 번만 나타날 것.
- 안긴절에는 짧은 부정 표현이 나타날 것.
- 안은문장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설 것.

- ① 그는 한동안 차갑지 않은 음식만 먹었다.
- ② 그는 바쁜 업무들이 안 끝났다고 통보했다.
- ③ 나는 결코 포기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 ④ 나는 그 버스가 제때 못 올 것을 예상한다.
- ⑤ 나는 그가 못 읽은 소설을 이미 다 읽었다.

[40~42] (가)는 학생회 학생들의 누리 소통망 대화이고, (나)는 학생회에서 발송한 뉴스레터 화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애들아, 안녕? 뉴스레터 8월 호 제작 회의를 시작할게! **희경** ... ㉠

오늘 회의는 '따끈따끈 소식' 기사 내용 선정, '사람을 만나다' 면담 대상자 및 기사 내용 선정, '학생회 소식' 기사 내용 선정 순으로 진행할게.

먼저 '따끈따끈 소식'에는 어떤 기사를 담을까?

**승민** 구독하는 학생들에게 관심이 높은 운동장 야영을 다루면 어때? 2학기는 8월에 신청하는데, 1학기에도 경쟁률이 정말 높았어.

**한빛** 좋아! 경쟁률이 높아서 신청서를 잘 작성해야 되니 선정된 학생들의 작성 비결을 다루면 좋겠어. .... ㉡

그래. 운동장 야영 신청서 작성에 대해 다루자. 또 하나는? **희경**

**정희** 난 학교 도서관에 가면 책 고르기가 힘들어서 학생들이 많이 빌린 책 순위를 보고 빌려. 뉴스레터를 구독하는 학생들에게 순위를 알려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어느 반이 책을 많이 빌리는지 그 순위도 궁금해할 거 같지 않아?

**윤찬** 그건 책을 고르는 것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냥 대출 순위만 알려 주자. 학생들이 1학기에 많이 빌린 책 목록을 받아 놓은 게 있어. 찾아서 올려 줄게.

알았어. 그럼 '사람을 만나다'에서는 누구를 만날까? **희경**

**재환** 우리 반에 노래 대회에서 우승한 친구가 있는데 구독하는 학생들도 궁금해하니 그 친구는 어때? 학생들에게 인기라 요즘 이야기를 많이 해.

**민하** 맞아. 유○○을 말하는구나. 면담 대상으로 좋은 듯해. 대회에서 부른 노래, 대회 참가 소감을 다루면 좋겠네. 내가 대회 공식 영상 링크를 올려 줄게.

'제3회 ◇◇ 노래 대회' 우승.....  
<https://gutds.com/yJdShG>

**민하** <https://gutds.com/yJdShG> ..... ㉢

**한빛** 정말 잘 부른다!

그러게. 이제 한 명만 남았네?? 누구에 대해 다루는 게 좋을까?? **희경** ... ㉣

**범석** 이번 호에는 박□□ 선생님에 대해 기사를 쓰는 게 어떨까? 8월 말에 정년 퇴임을 하셔서 9월부터는 학교에서 볼 수 없으니 학교에 계실 때 뵙고 이야기를 나누자.

**수민** 좋은 생각이야. 이제 교단을 떠나시니 교사로서의 삶을 다루면 좋을 것 같아. 어때?

**윤찬** 1학기 도서 대출 현황.pdf ..... ㉤

빌린 책 순위가 여기 나와 있어. 이걸 활용해서 기사를 쓰자.

좋아. 박□□ 선생님과 면담한 내용으로 기사를 쓰자. 윤찬아, 확인했어. 그 내용으로 하자. 이제 '학생회 소식'에서 다룰 내용을 정해야 돼. **희경**

**혜정** 8월의 학생회 행사는 '학습 도우미' 프로그램이야. 23일에 하는데, 1학기에 어떤 프로그램인지 몰라서 신청을 못한 학생들이 많았다.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기사를 쓰면 어때?

**지호**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을 안내해 주면 참가하려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 내용으로 기사를 쓰자.

좋아. 이제까지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뉴스레터를 만들자. **희경**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출수형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훈민정음 반포 직후 간행된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을 보면 표기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훈민정음』(해례본)의 팔중성가죽용, 즉 ‘ㄱ, ㆁ, ㆁ, ㄴ, ㄷ, ㄹ, ㅁ, ㅂ, ㅅ, ㅈ’로 모든 끝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는 원리는 세 문헌에서 모두 예외가 보이는데 예외가 되는 표기가 서로 달랐다.

고유어의 이어 적기와 끊어 적기에서도 이들은 차이가 난다. 체언과 조사, 용언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용비어천가』와 『석보상절』은 이어 적기 방식을 취했다. 다만, 『석보상절』은 체언의 끝소리가 ‘ㅇ’일 때 ‘중의’(중의)처럼 [A] 이어 적기도 하고, ‘중으란’(중은)처럼 끊어 적기도 하였다. 『월인천강지곡』은 체언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인 ‘ㅇ, ㄴ, ㄷ, ㄹ, ㅁ, ㅂ, ㅅ’일 때와 용언 어간의 끝소리가 ‘ㄴ, ㄷ’일 때 끊어 적기를 하였고, 그 밖에는 이어 적기를 하였다. 다만, ‘뿌늘’, ‘말쓰물’, ‘우수물’에서는 이어 적기가 보인다.

사잇소리 표기에서는, 『용비어천가』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ㆁ’을 썼는데, 이 가운데 ‘ㆁ’은 ‘나라 일흠’(나라의 이름), ‘님굶 밍슴’(임금의 마음), ‘바룻 우회’(바다의 위에) 등과 같이 모음 및 ‘ㄴ, ㄷ, ㄹ’ 등의 울림소리 사이에서 나타났다. 『석보상절』은 사잇소리 표기에 ‘ㅅ’을 썼지만 ‘ㅅ’ 대신 ‘ㄱ, ㄴ, ㅇ’을 쓰기도 하였다. 이와 달리 『월인천강지곡』은 사잇소리 표기를 ‘ㅅ’으로 통일하였다. 이후 문헌에서 사잇소리 표기는 ‘ㅅ’으로 통일되어 갔으며, 현대 국어에서 ‘촛불’의 ‘ㅅ’처럼 합성어의 사잇소리 표기에 남아 있다.

한자를 적을 때는, 『용비어천가』는 따로 한자의 음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석보상절』은 한자를 적고 이어서 그 한자의 음을 제시하였으며, 『월인천강지곡』은 한자의 음을 적고 이어서 그 한자를 제시하였다.

한편 『용비어천가』는 ‘봉’을 가진 ‘드뵤다’(되다), ‘호뵤사’(혼자)를 이 형태로만 썼는데, 『석보상절』은 ‘드뵤다’는 ‘드뵤다’나 ‘드외다’로 썼고 ‘호뵤사’는 ‘호오사’로만 썼으며, 『월인천강지곡』은 각각 ‘드외다’, ‘호오사’로만 썼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비어천가』에 나타나는 ‘높고’와 ‘빛’은 팔중성가죽용의 원리에 어긋나는 예이다.
  - ② ‘오늘’(오늘)과 ‘날’ 사이의 사잇소리 표기는 『용비어천가』에서는 ‘ㆁ’, 『월인천강지곡』에서는 ‘ㅅ’을 썼다.
  - ③ 현대 국어 ‘바닷물’의 ‘ㅅ’ 표기는 중세 국어 사잇소리 표기에서 유래하였다.
  - ④ 중세 국어 한자음이 ‘턴’인 ‘天’은 『석보상절』에서 ‘天뵤’, 『월인천강지곡』에서 ‘턴天’으로 적었다.
  - ⑤ ‘혼자’의 중세 국어 표기는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세 문헌을 통틀어 세 가지가 나타난다.

36. [A]와 <자료>를 통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 료>—

- 더녁 ㉠ ㄱ새(ㄱ+애) 건나가샤 - 『석보상절』  
[저쪽 가에 건너가시어]
- 피화 그르세 ㉡ 답아(담+아) - 『월인천강지곡』  
[모아서 그릇에 담아]
- ㉢ 누네(눈+에) 빗 봄과 - 『석보상절』  
[눈에 빗 봄과]
- 쏜 살이 세 날 ㉣ 뽕뽕(뽕+뽕) 빼어디니 - 『월인천강지곡』  
[쏜 화살이 세 개 북만 빼어지니]
- 너희 ㉤ 스승니물(스승+님+을) 보습고져 호노니 - 『석보상절』  
[너희 스승님을 뵈고자 하니]

- ① ㉠은 『용비어천가』에서 ‘ㄱ새’로 적혀 있겠군.
- ② ㉡은 『석보상절』에서 ‘다마’로 적혀 있겠군.
- ③ ㉢은 『월인천강지곡』에서 ‘눈에’로 적혀 있겠군.
- ④ ㉣이 조사 ‘을’과 결합하면 동일 문헌에서 ‘뽕을’로 적혀겠군.
- ⑤ ㉤이 조사 ‘이’와 결합하면 동일 문헌에서 ‘스스이’나 ‘스승이’로 적혀겠군.

37. 밑줄 친 두 단어가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동일한 모습의 단어가 다른 의미로 쓰일 때, 이들은 의미의 연관성이 없는 ㉠ 동음이의어 관계(예 단풍 철: 철 성분)나 연관성이 있는 ㉡ 다의어 관계(예 머리를 깎다: 배의 머리)에 놓인다. 다의어는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지닌 것인데, 이때 그 구체적 의미가 달라 유의어나 반의어가 다른 경우가 있다. 용언이 다의어일 때는 ㉢ 필수 성분의 개수가 다르거나, 개수는 같고 종류가 다른 경우가 있다. 물론 다의어의 각 의미 간에 유의어나 ㉣ 반의어가 같은 경우도 있고 ㉤ 필수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모두 동일한 경우도 있다.

- ① ㉠ [난로에 불을 피웠다.  
그들의 사랑에 불이 붙었다.]
- ② ㉡ [이곳엔 가위표를 치는 거야.  
구슬 치는 아이가 있다.]
- ③ ㉢ [나는 종소리를 듣지 못했다.  
충고까지 잔소리로 듣지 마.]
- ④ ㉣ [배우가 얇은 화장을 했다.  
아이가 얇은 잠에 들었다.]
- ⑤ ㉤ [이곳은 벌써 따뜻한 봄이 왔다.  
그의 성공은 부단한 노력에서 왔다.]

38.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파열음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ㅋ ㆁ	
파찰음			ㅈ ㅉ ㅊ		
마찰음		ㅅ ㅆ			ㅎ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국어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한 위 표를 바탕으로 [자료]의 자음 교체 양상을 알아보자.

[자료]

- ㉠ 덧쌓는[덧싼는]    ㉡ 속력도[송녀또]    ㉢ 읽었고[일견꼬]
- ㉣ 겉옷만[거돈만]    ㉤ 맞붙임[만뿌침]

- ① ㉠에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변하는 자음 교체가 있다.
- ② ㉡에는 조음 위치는 변하고 조음 방법은 변하지 않는 자음 교체가 있다.
- ③ ㉢에 나타나는 자음 교체는 모두,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변한다.
- ④ ㉣에 나타나는 자음 교체는 모두,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변하지 않는다.
- ⑤ ㉤에 나타나는 자음 교체는 모두, 조음 위치는 변하지 않고 조음 방법만 변한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간접 인용될 때 원 발화의 인칭·지시·시간 표현 등은 맥락에 따라 조정되며, 상대 높임 종결 어미는 격식체든 비격식체든, 높임이든 낮춤이든, 문장의 종류별로 한 가지로 한정된다. '보다'를 예로 들면 '본다고'(평서), '보냐고'(의문), '보라고'(명령), '보자고'(청유)처럼 나타난다. 감탄형 어미는 평서형으로 실현된다(예 보는구나 → 본다고). 이런 이유로 서로 다른 발화라도 간접 인용될 때 같은 형식을 가질 수 있다.

<자 료>

○ 그는 그제 우리에게 ㉠오늘은 청소를 같이 하자고 말했다.  
○ 김 선생은 ㉡자기도 시를 좋아한다고 학생들에게 말했다.  
○ 어제 나한테 ㉢네가 내일 퇴원을 할 수 있겠냐고 물었지?

- ① ㉠은 '모레는'이라는 부사어를 가진 발화를 인용한 것일 수 없다.
- ② ㉠의 '하자'는 '해요'를 간접 인용한 것일 수 있다.
- ③ ㉡은 2인칭 주어를 가진 발화를 인용한 것일 수 있다.
- ④ ㉡의 '좋아한다'는 '좋아합니다'를 간접 인용한 것일 수 없다.
- ⑤ ㉢은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를 가진 발화를 인용한 것일 수 없다.

[40~43] (가)는 온라인 실시간 방송이고, (나)는 방송을 시청한 학생이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푸근: 안녕하세요? '푸근의 지식 창고' 채널의 푸근입니다. 화면에 실시간 대화창을 띄울게요. 오늘은 공학 박사이신 전선 님을 모셨어요. 반갑습니다!

전선: 안녕하세요! 전선입니다.

푸근: 오늘 나눌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전선: '플러그와 콘센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푸근: ㉠제가 얼마 전 일본 여행을 갔다가 현지 콘센트에 맞는 충전기 어댑터를 챙기지 않아 휴대 전화 충전에 애를 먹었어요.

전선: 그랬군요. 우리나라와 '플러그와 콘센트' 규격에 차이가 있죠.

[A] ㉡가을비 전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데, 갈 때마다 그 나라 콘센트에 맞는 충전기 어댑터를 챙겨야 해서 번거로워요.

푸근: 가을비 님, 맞아요. 번거롭죠. 전선 님, 그런데 왜 일본은 우리나라와 다른가요?

전선: 일본은 전기를 보내고 받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라마다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하다 보니 '플러그와 콘센트'의 모양이 다양해졌어요. '플러그와 콘센트' 유형을 보여 주는 이미지를 띄워 주실래요?

푸근: 네. 화면을 나눠서 이미지를 띄울게요. 질문이나 의견은 계속 올려 주세요.



전선: 화면에 나오는 A형, B형은 모두 미국과 일본에서, C형, F형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해요. 질문이 올라왔네요.

[B] ㉣아침 '플러그와 콘센트'도 국제 표준 규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플러그와 콘센트' 규격이 나라별로 차이가 있기도 하네요. 왜 그렇죠?  
㉣풍경 국제 표준 규격을 정하는 게 생산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플러그와 콘센트'의 국제 표준 규격을 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나요?

아침 님, 풍경 님.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1986년에 '플러그와 콘센트'의 국제 표준 규격을 N형으로 정했어요. 하지만 많은 나라가 이미 독자적으로 표준을 정했었고, 그러다 보니 국제 표준 규격을 채택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푸근: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원래 A형을 쓰지 않았나요?

전선: 네. 110V 전력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A형을 썼었어요. 그러다 열악한 전력 사정을 고려해서 110V에 비해 전력 공급 효율이 높은 220V로 바꾸는 송압 사업을 1973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플러그와 콘센트'도 C형, F형으로 바꿨죠.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의 용언은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여 다양하게 활용한다. 용언의 활용형은 원칙적으로 어간과 어미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 그런데 용언이 활용할 때에는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고 반영되지 않기도 한다. 예컨대 ‘쌓다’는 ‘쌓+고[싸코]’에서 거센소리되기, ‘쌓+아[싸아]’에서 ‘ㅎ’ 탈락, ‘쌓+는[싼는]’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적용되더라도 이들 음운 변동 결과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날다’의 경우에는 ‘날+고[날고]’, ‘날+아[나라]’, ‘날+니[나니]’로 활용하는데, ‘ㄹ’ 탈락이 일어날 때의 결과는 표기에 반영된다.

이제 어간 말 모음을 가진 용언이 모음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를 중심으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는지를 살펴보자. 첫째, 어간 말 모음이 ‘오/우’이면 반모음으로의 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 예컨대 ‘나오+아[나와]’는 ㉠ 어간 말 모음 ‘오’가 반모음 ‘w’로 교체된 것이다. 이는 ‘쏘+아’가 음절이 줄어 ‘쏘’가 될 때에도 발견된다. 둘째, 어간 말 모음이 ‘이’이면 ㉡ 어간 말 모음 ‘이’가 반모음 ‘j’로 교체될 수 있다. 이는 ‘견디+어’의 음절이 줄어 ‘견더’가 되는 과정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견디+어[견디어]’는 [견디어]처럼 ㉢ 어미 ‘어’에 반모음 ‘j’가 첨가되는 현상도 보인다. 그러나 ‘스’ 불규칙 용언의 활용에서는 ‘(밥을) 짓+어[지어]’처럼 반모음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셋째, 어간 말 모음이 ‘아/어’이면 ㉣ 동일 모음 탈락이 일어난다. 일례로 ‘사다’의 활용형인 ‘사+아[사]’에서는 동일한 모음 중 하나가 탈락한다. 넷째, 어간 말 모음이 ‘으’이면 ㉤ 어간 말 모음 ‘으’가 탈락한다. 이는 ‘쓰다’의 활용형인 ‘쓰+어[써]’에서 확인된다. 위의 경우들에서, ‘j’ 반모음 첨가를 제외하고는 음운 변동의 결과가 모두 표기에 반영된다.

‘넷째’ 경우와 관련하여, 어간 말이 ‘르’일 때 ‘으’ 탈락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르’ 불규칙, ‘러’ 불규칙 활용 용언에서 그러하다. 가령 ‘쓰다’처럼 활용하는 ‘치르다’와 달리, ‘지르다’는 어간이 ‘질르’로 바뀌어 ‘질러’로, ‘(정상에) 이르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뀌어 ‘이르러’로 활용한다. 이 두 활용도 모두 표기에 반영된다.

3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용언이 불규칙 활용해도 어간, 어미의 원래 형태대로 적는다.
- ② 용언의 어간이 여러 어미와 결합할 때 한 가지 음운 변동만 일어난다.
- ③ ‘(문제를) 푸니’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지만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 ④ ‘본떠’는 ‘닮아서’와 달리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⑤ ‘(정상에) 이르다’와 ‘(주의 사항을) 이르다’의 활용은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36. 다음은 학생이 ‘음운 변동’을 중심으로 [A]를 요약한 것이다.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운 변동	활용 사례
㉠	나오 + 아 → 나와
㉡	견디 + 어 → 견디어 → 견뎌
㉢	견디 + 어 → 견디어[견디어/견디어] -----
㉣	사 + 아 → 사
㉤	쓰 + 어 → 써

※ 주의

짓 + 어  
↓  
지어  
[지어/지어]

- ① ‘(다리를) 파서’, ‘(꽃을) 봐서’는 모두 ㉠의 사례로 추가할 수 있군.
- ② ‘(회사에) 다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는 모두 ㉡의 사례로 추가할 수 있군.
- ③ ‘(어려움을) 버티어’는 ‘(두 점을) 이어’와 달리 ㉢의 사례로 추가할 수 있군.
- ④ ‘(잘못을) 나무라서’는 ‘(유행을) 따라서’와 달리 ㉣의 사례로 추가할 수 있군.
- ⑤ ‘(김치를) 담가’, ‘(돈을) 모아’는 모두 ㉤의 사례로 추가할 수 있군.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선생님: 오늘은 이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장을 분석해 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제시 문장에서 다음의 ㉠~㉤이 실현되었는지를 분석해 보세요.

- ㉠ 피동 접미사가 결합한 피동사
- ㉡ 서술어로 기능하는 안긴문장
- ㉢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서술어

	제시 문장	수행 결과
①	우리나라 선수는 올림픽 대회에서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실력자이다.	㉠은 실현되었지만 ㉡은 실현되지 않았다.
②	내 짝은 어제 졸업식장에 친구들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모아 왔다.	㉠은 실현되었지만 ㉢은 실현되지 않았다.
③	친구가 마음이 어려서 나는 친구의 부탁을 가볍게 넘기지 못했다.	㉡은 실현되었지만 ㉠은 실현되지 않았다.
④	형이 골동품 가게에서 싸게 산 우표가 올해 들어 값이 올랐다.	㉡은 실현되었지만 ㉢은 실현되지 않았다.
⑤	나는 날씨가 따뜻해질 것처럼 보여 외출했다가 감기에 걸려 버렸다.	㉢은 실현되었지만 ㉠은 실현되지 않았다.

38. <보기>의 ㉠,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다음 두 문장에 쓰인 관형사절은 수식을 받는 명사가 '사실'이라는 점은 같지만 두 관형사절의 성격은 다르다.

(가) 나는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나) 나는 동생이 열심히 노력한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가)는 '사실'이 관형사절의 원래 문장 '(생략된 주어)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의 주어에 해당하여, ㉠ 수식받는 명사가 관형사절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는 경우이다. 반면 (나)는 관형사절의 원래 문장 '동생이 열심히 노력하였다.'가 '사실'의 내용에 해당하여, ㉡ 수식받는 명사가 관형사절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없는 경우이다.

- ㉠ ㉠: 그들은 함께 어울렸던 기억을 더듬어 나갔다.
- ㉡ ㉠: 어제 박물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모두 놀랐다.
- ㉡ ㉡: 이 손목시계는 방수가 잘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 ㉡ ㉢: 언론에서는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 ㉡ ㉣: 친구는 새벽마다 운동을 한 경험을 소중히 여겼다.

39. 다음은 중세 국어 목적격 조사의 사용에 대한 수업의 일부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 중세 국어 목적격 조사는 '을/를' 외에 '을/를'도 있었어요. 체언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을/을'이, 받침이 없으면 '를/를'이 결합했어요. 그리고 중세 국어에서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진 모음 조화에 따라, 체언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ㅏ, ㅑ, ㅓ, ㅕ, ㅗ)이면 '을/를'이, 음성 모음(ㅜ, ㅠ, ㅡ, ㅣ)이면 '을/를'이 결합했어요.

**학 생:** 그럼 끝음절 모음이 중성 모음 'ㅣ'인 체언은 어떤 형태의 목적격 조사와 결합했나요?

**선생님:** 그 경우에는 모음 조화와 무관하게 받침의 유무로만 조사가 결정되면서 '을/를'은 물론 '을/를'과도 결합할 수 있었어요. 특이한 것은, 끝음절 모음이 'ㅣ'인 체언도 중성 모음 'ㅣ'인 체언과 마찬가지로 받침 유무에 따라서만 조사가 결합했다는 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맞게 다음 중세 국어 단어들을 ㉠~㉣에 넣어 보세요.

중세 국어 단어	목적격 조사	결합 단어
둥게(뎡개), 바를(바다), 염규(부추), 아바님(아버님), 씬(꿈), 벼로(벼루)	을	㉠
	를	㉡
	을	㉢
	를	㉣

- ㉠ ㉠에 들어갈 단어는 '바를'뿐이다.
- ㉡ ㉡에 들어갈 단어는 '염규', '벼로'이다.
- ㉢ ㉢에 들어갈 단어는 '아바님', '션'이다.
- ㉣ ㉣에 들어갈 단어는 '둥게'뿐이다.
- ㉤ ㉣과 ㉣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아바님'이다.

[40~43] (가)는 학급 활동 기획부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작성한 공동 문서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한 누리 소통망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The screenshot shows a document with the following content:

- 1. 활동명:** 독서하고 토론하고
- 2. 시기:** 2025년 4월 2일 ~ 4월 30일, 매주 수요일 7교시, 총 5회[총 4회]
- 3. 과정 요약:**
  - 모둠 구성 및 책 선정[서로 다른 책 선정]
  - 개별 독서 활동
  - 독서 일지 작성 및 질문 생성
  - ㉠ 모둠별 활동 진행 → △△변환기 앱으로 활동 내용 기록
  - 모둠 보고서 작성
- 4. 기타 사항:**
  - 개별 독서용 책을 4월 9일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단체로 대여하기[각자 준비하기]
  - △△변환기 앱 미리 설치하기

Comments and suggestions:

- [소민] 3.26. 19:23:** [안내] 내용 변경이 필요하면 '제안' 기능을, 이 외 덧붙일 의견은 '덧글' 기능을 사용해 의견 남겨 줘. 나중에 협의를 통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자.
- [채현] 3.26. 22:13:** '총 5회'를 '총 4회'로 제안
- [민정] 3.27. 17:47:** '책 선정'을 '서로 다른 책 선정'으로 제안
- [준모] 3.27. 18:11:** △△변환기 앱은 말하는 내용을 글로 변환해 주는 앱이지? ㉡ 이 앱을 안 써 본 친구들은 생소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
- [준모] 3.26. 22:30:** '학교 도서관에서 단체로 대여하기'를 '각자 준비하기'로 제안

(나)

3학년 4반 활동 기획부 대화방

2025년 3월 30일

㉢ 애들아, 활동 계획서는 제안된 내용이나 덧글 내용 위주로 살펴보고 의견 주면 좋겠어. 소민

채현 4월에 자율 활동이 없는 주가 있어서 총 4회 일정으로 바꿔 봤어. 헛갈리지 않게 일자별 과정만 다시 정리했는데, 한번 올려 볼게.

일정 수정\_채현.jpg

일자	과정	활동 시간	비고
2025.4.2.	• 모둠 구성 및 책 선정	50분	
2025.4.9.	• 개별 독서 활동	50분	
2025.4.23.	• 독서 일지 작성 및 질문 생성	50분	
2025.4.30.	• 모둠별 활동 진행	50분	
2025.4.30.	• 모둠 보고서 작성	50분	

민정 일자별 과정을 표로 정리하니 보기 좋다. 이 틀을 활용해 기타 사항도 비교란에 추가해서 활동 계획서를 재구성하는 건 어때?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채현이가 제안한 내용을 보고 확인했는데, 16일 7교시 자율 활동과 23일 6교시가 서로 바뀌었다라고. 결국 23일은 6, 7교시가 모두 자율 활동이니까 100분으로 변경해야 할 거 같아. 소민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장을 이루는 단위에는 단어, 구, 절 등이 있다. 이들은 같은 단위끼리 대등하게 연결되어 병렬 구성을 이룰 수 있다. 단, 명사와 명사구는 같은 단위가 아니지만 병렬 구성을 이룰 수 있다. 국어에서는 조사, 어미 등을 사용하여 병렬 구성을 만든다. 예컨대, ‘물과 불’에서는 ‘물’과 ‘불’이 접속 조사 ‘과’로, ‘밖은 춥고 안은 덥다.’에서는 ‘밖은 춥’과 ‘안은 덥’이 연결 어미 ‘-고’로 대등하게 연결되었다. 물론 동일한 단위가 조사나 어미 없이 나열되는 것으로도 병렬 구성을 이룰 수 있다.

병렬 구성에서는 둘 이상의 요소가 대등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들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도 의미는 유지된다. 예컨대, ‘밖은 춥고 안은 덥다.’나 ‘안은 덥고 밖은 춥다.’는 둘 다 같은 사실을 나타낸다. 또한 절이 병렬 구성을 이룰 때, 선행절과 후행절에서 똑같은 말이 동일한 문장 성분이면 후행절의 해당 성분이 생략될 수 있다. ‘형은 지금 네 살이고 동생은 지금 세 살이다.’에서 후행절의 ‘지금’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병렬 구성의 특성을 이해하면 문장의 문법적 적절성을 따질 때 유용하다. 예컨대, ‘어떤 법으로써 평화 수호와 인권 보장이 담보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려고 쓴 ‘이 법으로 평화 수호와 인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를 상정해 보자. 이때 조사 ‘와’로 연결된 두 요소는 ‘평화 수호’와 ‘인권을 보장하기’인데, 전자는 구이고 후자는 절이다. 즉 ㉠ 병렬 구성을 이루려면 그 요소들의 단위가 동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그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에서 후행절에 나타나지 않은 부사어 ‘남에게’는 선행절의 목적어 ‘남을’과는 다른 문장 성분이다. 즉 ㉡ 동일한 문장 성분이 아닌데 생략되어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끝으로 ‘빵과 물을 마셨다.’에서, ‘빵과 물’은 병렬 구성이지만 ‘빵’은 서술어 ‘마시다’의 목적어가 될 수 없다. 즉 ㉢ 대등하게 연결된 모든 요소가 동일한 성분에 호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35.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서관이 우리 집과 참 가깝다.’를 ‘우리 집이 도서관과 참 가깝다.’로 바꾸어도 의미가 유지되므로 두 문장에는 모두 병렬 구성이 있다.
- ② ‘나는 빵을 먹고 기분이 좋아졌다.’에는 연결 어미가 쓰였으나 두 절이 대등하게 연결된 것은 아니므로 이 문장에는 병렬 구성이 없다.
- ③ ‘팥, 콩, 쌀이 많다.’에는 접속 조사가 없지만 명사가 대등하게 나열되어 있으므로 이 문장에는 병렬 구성이 있다.
- ④ ‘오래 건기랑 빨리 건기 중에 뭘 할까?’에는 병렬 구성이 있지만, 이는 어미로써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 ⑤ ‘동생은 중학생이었으나 형은 대학생이었다.’에는 병렬 구성이 있고, 이는 어미로써 이루어졌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에는 ㉠~㉣의 문제가 하나 이상씩 있다. [보기 문장]에는 이런 문제 없이, ㉠~㉣가 나타내려던 바가 표현되어 있다. 이제 ㉠~㉣에서 ㉠~㉣의 문제를 있는 대로 찾아보자.

㉠ 나는 매주 체력을 단련하거나 방 청소 후에 집을 나가지만, 형은 국을 끓이거나 빵을 굽느라고 집에 머문다.

㉡ 나는 매주 체력을 단련하거나 방을 청소한 후에 집을 나가지만, 형은 국이나 빵을 굽느라고 머문다.

㉢ 나는 매주 체력 단련이나 방을 청소한 후에 집을 나가지만, 형은 국을 끓이거나 빵을 굽느라고 머문다.

㉣ 나는 매주 체력 단련이나 방 청소 후에 집을 나가지만, 형은 국이나 빵을 굽느라고 집에 머문다.

㉤ 나는 매주 체력을 단련하거나 방을 청소한 후에 집을 나가지만, 형은 국을 끓이거나 빵을 굽느라고 머문다.

[보기 문장] 나는 매주 체력 단련이나 방 청소 후에 집을 나가지만, 형은 국을 끓이거나 빵을 굽느라고 집에 머문다.

- ① ㉠ : ㉠
- ②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37.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현기의 부모가 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으로 가려는 상황]

엄마: 아들, 여행사 안내문 좀 가져다줄래? 엄마가, 우리 언제 나가야 하나 좀 ㉠ 보자.

아빠: (방에 들어오며) ㉡ 당신 뭐해요?

엄마: 요 ㉢ 앞 여행 때 늦었던 게 생각나 시간 좀 보려고요.

아들: (엄마에게 전해 준 안내문을 함께 보며) 여기 말고, ㉣ 다음 장. 네, 거기, 집합 장소에서 11시에 모여야 한대요.

아빠: 그럼, 집 ㉤ 앞에서 9시 버스 타면 되겠네요. 아, 어머니 전화 왔었어요. ㉥ 당신께서 오후에 현기 보러 오신대요. 현기야, 우리 올 때까지 잘 지내고 있어.

아들: 네, 잘 다녀오세요. ㉦ 다음에는 저도 같이 갈게요.

엄마: 그래, ㉧ 우리 갔다 올게. 할머니랑 둘이 있는 동안에도, 우리, 화초에 물 매일 꼭 ㉨ 주자.

- ① ㉠의 주체는 ㉤이 가리키는 대상과 같다.
- ② ㉡과 ㉥은 모두 청자를 가리킨다.
- ③ ㉣은 ㉤과 달리 시간을 가리킨다.
- ④ ㉦이 가리키는 시간은 ㉤보다 먼저이다.
- ⑤ ㉨의 주체에는 ㉡이 가리키는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

38.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3점]

—<학습 활동>—

격 조사나 보조사는 앞말에 둘 이상 결합할 수 있다. 이때 이들의 결합 유형에는 ‘격 조사-격 조사’, ‘격 조사-보조사’, ‘보조사-격 조사’, ‘보조사-보조사’가 있다. 예컨대 ‘형에게 조차도’의 ‘에게조차’는 두 번째 유형에, ‘조차도’는 네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또한 일부 격 조사와 달리, 보조사는 어미나 부사 바로 뒤에도 결합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아래 문장에서 확인되는, 격 조사와 보조사의 결합 유형이 모두 나타나 있는 문장을 만들어 보자.

그 애는 늦게나마 나만을 위해 자기한테만 있는 책을 빌려줬다.

- ① 작은 집이나마 필요한 동물은 고양이만이 아니겠다.
- ② 뜻밖에 그 좋은 소식이 큰누나에게까지는 전해졌다.
- ③ 규정만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길이 이밖에는 없었다.
- ④ 논리가 이것뿐이라면 말로써는 이길 도리가 없겠다.
- ⑤ 우리만의 장점을 그에게 조금이라도 설명해야 했다.

39.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 단어의 의미 변화에는 원래의 의미가 유지되고 새로운 의미가 더해지는 확대, 원래의 의미 중 일부가 사라지는 축소, 원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이동 등이 있어요. ‘스시(사이)’는 확대를, ‘놀다(놀다)’는 축소를, ‘즈슴하다(즈슴하다)’는 이동을 겪었어요. 이를 확정할 수 있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자료를 아래에 제시했어요. 이들 단어의 의미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정보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 도즈기 ㉠ 스실(스시+르) 디나샤 [도적의 사이를 지나서]
- 七寶琴(칠보금) ㉡ 놀오(놀--+고) [칠보금을 연주하고]
- 프른 門(문)이 ㉢ 즘슴흐고(즈슴ㅎ--+고) [푸른 문이 사이에 있고]

- ㉣ 사이 좋은 가족
- 물고기가 한가로이 ㉤ 놀고
- 현충일에 ㉥ 즘슴하여

학 생: 현대 국어 단어 [A] 을 확인해야 해요.  
 선생님: 네, 맞아요.

- ① ‘사이’에 ㉠에서의 뜻이 없고 중세 국어 ‘스시’에 ㉣에서의 뜻이 없음
- ② ‘놀다’에 ㉡에서의 뜻이 있고 중세 국어 ‘놀다’에 ㉤에서의 뜻이 없음
- ③ ‘놀다’에 ㉡에서의 뜻이 없고 중세 국어 ‘놀다’에 ㉤에서의 뜻이 없음
- ④ ‘즈슴하다’에 ㉢에서의 뜻이 없고 중세 국어 ‘즈슴하다’에 ㉥에서의 뜻이 있음
- ⑤ ‘즈슴하다’에 ㉢에서의 뜻이 없고 중세 국어 ‘즈슴하다’에 ㉥에서의 뜻이 없음

[40~43] (가)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수업 시간에 발표하기 위해 만든 자료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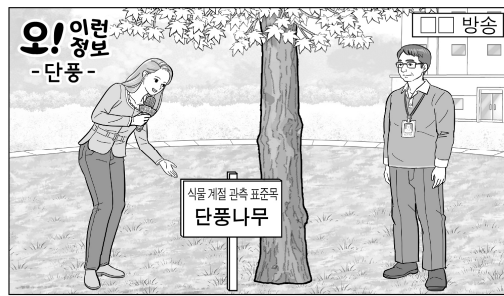
(가)

리포터: ‘오! 이런 정보’ 시작합니다. 가을의 초입이라서 그런지 단풍 구경을 언제 가는 게 좋을지 알려 달라는 시청자분들이 많았어요. ㉠ 그래서 오늘은 단풍 시작과 절정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의 단풍 시작과 절정을 알리는 특별한 나무가 □□ 지방 기상청에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 왔습니다. 기상 관측 담당자를 모시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측 담당자: 안녕하세요. □□ 지방 기상청 관측과 과장 김○○입니다.

리포터: ㉡ 이곳에 특별한 나무가 있다던데, 어디 있나요?

관측 담당자: 뒤를 보시죠. 바로 이 단풍나무입니다.

리포터: 여느 단풍나무와 다른 점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 여러분,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팻말에 ‘식물 계절 관측 표준목’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이 특별한 점인 것 같습니다.



관측 담당자: 맞습니다. 지금은 9월 초라 단풍이 들기 전인데요, 이 단풍나무는 □□시의 공식적인 단풍 시작과 절정의 기준이 되는 ‘식물 계절 관측 표준목’ 중 하나입니다. 기상청은 계절의 지역 차이와 기후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식물 계절 관측을 합니다. 기상청 산하 23개 기관이 전국의 유명한 산과 10종의 표준목을 관측하고 있는데, 이들 표준목 중 단풍나무의 경우 단풍 시작과 절정을 관측하여 기록합니다.

리포터: 이 나무가 □□시의 단풍 시작과 절정을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니 달리 보이네요. 그럼 단풍나무 표준목에서 단풍 시작과 절정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관측 담당자: 단풍나무 표준목이 20% 정도 물든 때를 해당 지역의 단풍 시작, 80% 정도 물든 때를 단풍 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관측자가 물든 정도를 눈으로 직접 관측하여 판단합니다.

리포터: ㉢ 그렇다면 단풍 시작에서 절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관측 담당자: 지역마다,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픽으로 나가는 □□시의 최근 3년 자료를 보시면 단풍 시작에서 절정까지 10일 내외가 소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	시작	절정	소요기간
2024년	10/25	11/3	9일
2023년	10/18	10/29	11일
2022년	10/24	11/3	10일

□□시 최근 3년 단풍 관측 정보



38.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정원과 지수가 카페에서 만난 상황>

정원: 어머, 지수야 안녕? ㉠ 여기는 무슨 일이야?

지수: 응, 안녕? 이따 학생회 회의가 있어서. ㉡ 이번에 □□  
고등학교하고 연합 체육 대회를 하잖아.

정원: 아! 맞아, 네가 체육부장이지? 작년에는 ㉢ 거기 운동장  
에서 했으니까 이번엔 우리 학교에서 하겠네?

지수: 맞아. 올해는 우리 학교 체육관에서 하기로 해서 할 게  
많더라. 경기 종목 정하고, 간식도 준비해야 하고.

정원: 간식 준비도 우리가 해? ㉣ 그때도 여기서 준비했잖아.

지수: 응, ㉤ 그쪽이 대신 기념품 맡는데.

정원: 그래도 간식 준비가 훨씬 힘들지. ㉥ 거기랑 좀 나눠  
맡자고 해.

지수: ㉦ 그건 ㉧ 그래. 근데 ㉨ 그건 이미 결정되어서 다시  
분담하기가 좀 ㉩ 그러네.

- ① ㉠과 ㉢은 현재 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 ② ㉡은 발화시와 동일한 때를 가리키고, ㉣은 발화시 이전의 때를 가리킨다.
- ③ ㉤과 ㉥은 청자를 포함한 대상을 나타낸다.
- ④ ㉦과 ㉨은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내용을 가리킨다.
- ⑤ ㉧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고, ㉩은 상대의 제안에 대한 동의를 나타낸다.

39.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국어의 의존 형태소에는 접사, 조사, 어미 등이 있다. 이들은 각각 새로운 단어를 만들거나, 문법적 의미를 더해 주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 제시된 자료 ㉠~㉣을 분석해 보자.

㉠: 발표가 시작되자 참석자들은 모두 목소리를 낮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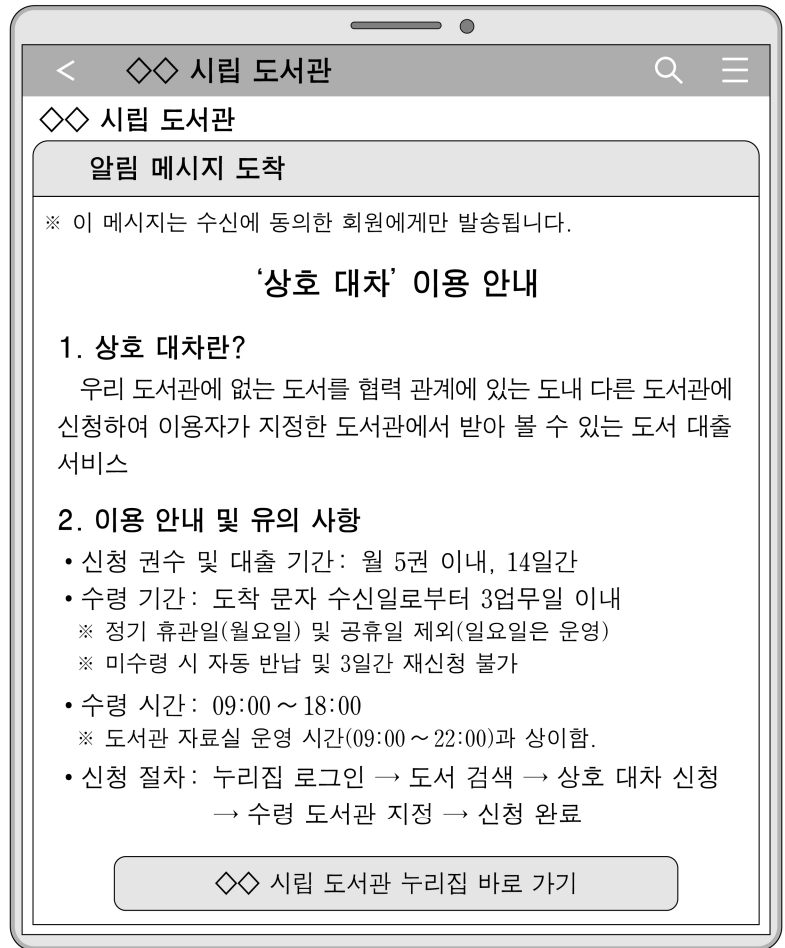
㉡: 비에 젖은 옷들을 말리는 데 시간을 다 빼앗겼다.

㉢: 나는 내일 친구랑 만나 미술관이랑 영화관에 가.

- ① ㉠의 ‘시작되자’와 ‘낮’의 접미사는 모두 어근에 결합하여 어근의 품사와는 다른 품사의 단어를 파생하였다.
- ② ㉠의 ‘낮’과 ㉡의 ‘빼’의 접미사는 모두 사동의 의미를 더해 주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다.
- ③ ㉠의 ‘시작되자’와 ㉡의 ‘말리는’은 모두 피동의 의미를 더해 주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다.
- ④ ㉢의 ‘친구랑’과 ‘미술관이랑’의 조사는 앞말의 받침 유무에 따른 이형태 관계에 있고, 모두 앞말을 부사어로 기능하게 한다.
- ⑤ ㉢의 ‘만나’와 ‘가’의 어미는 모두 문장을 종결하는 동일한 문법적 기능을 한다.

[40~43] (가)는 온라인 알림 메시지, (나)는 학생의 블로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